

密教經典의 新羅 傳來考

宗釋(全東赫)

佛教學科 教授

우리는 곧잘 고려불교를 秘密佛敎, 儀禮佛敎, 祈禱佛敎로 평가를 한다. 무엇이 고려불교를 이렇게 성격 짓게 만들었을까? 나는 그것을 密敎라 생각한다. 곧 밀교야말로 고려불교의 핵심으로서 고려불교를 규명하는 열쇠로서의 위상을 가짐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廢佛期 조선조 500년이란 冬眠의 역사를 지탱케해준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密敎의 韓國的 展開 研究는 한국불교의 실상을 규명하는 우리모두의 숙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그 논제가 말해주듯 密敎經典의 新羅 傳來에 대한 고찰로서, 이것을 통해 당시 開宗되어 있던 二大 密敎宗派 神印宗과 總持宗의 所依經典의 실태 파악은 물론 아직 그 실체를 확실히 규명해 놓고 있지 못한 신라 밀교의 구체적 실상 파악,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당시(신라 중기 : 664~780) 중국, 신라, 일본 삼국간에 펼쳐진 文化的 受容 내지 傳來史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日本書紀』(奈良時代의 역사서)에는 <新羅道> <新羅送使> <遣新羅使> <遣新羅學問僧>이란 단어들 이 자주 등장한다. 당시(나라시대)의 시대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일종의 키워드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곧 당시의 일본의 對外文化 輸入의 窓口는 唐이 아닌 新羅였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다. 당시는 신라불교의 황금기로서 元曉, 義湘, 圓測, 勝莊, 憬興, 道倫 등의 명승들이 활약하던 시대, 바꾸어 말하면 불교문화의 본거지인 唐과 거의 동등하리 만큼 수승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다시 말해 신라불교의 移植佛敎 그것이 바로 당시의 나라불교였던 것이다. 곧 <신라도>를 통해 <견신라사> <견신라학문승> <신라송사> 등이 신라에 전래되고 있던 경전들과 法具 그리고 불교의식이나 신앙들까지도 나라불교에 이식시켰던 것이다.

중국 및 일본의 史書에는 不可思議, 玄超, 義林, 惠超, 惠日 등 신라 밀교승들의 이름이 보인다. 모두가 金胎兩部 純密思想의 수학을 위해 神印宗과 總持宗에서 파견한 입당 신라 밀교승들이다. 곧 불가사의, 의림, 현초 등은 대장계 밀법의 大家인 善無畏三藏의 부촉 제자들이며, 혜일은 양부밀법의 부촉자인 惠果의 제자이며, 『왕오천축국전』으로 이름을 세상에 남긴 혜초는 金剛界 密法의 大家인 金剛智, 不空 兩 三藏의 제자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황금기의 시대 그 당시 신라시대에는 어떠한 경전들이 전래되어 있었을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경전들, 말하자면 唐에서 역경된 대부분의 현, 밀경전들이 전래되어 있었을 것이다. 신라불교의 이식불교인 奈良佛敎가 이토록 엄청난 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물며 傳授者 신라는 이보다 못하겠는가? 하지만 어떤 일인지 당시 신라의 經典 傳來 실태나 또 어떠한 경전들이 전래되고 있었는지는 거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실상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 문제를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시도된 논고이다. 본고의 결론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당시 신라에는 당시 나라시대에 전래되어 있던 경전들의 전체 상황을 알리는 『정창원문서』에 수록된 경전 以上の 顯密經典들이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곧 앞에서 거론한 신라 밀교승들을 비롯한 <입당신라유학승>들에 의해 직·간접으로 당나라에서 역출된 경전들 대부분이 신라에 장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密敎經典의 新羅 傳來考

宗釋 (全東赫)

불교학과 교수

- | | |
|-------------------------|-------------------------------|
| I. 문제의 소재 | 4. 『審詳和尚所藏錄』에 보이는 밀교경전 |
| II. 통일신라 전후기 삼국의 정세 | IV. 신라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
| 1. 신라와 당의 관계 | 1.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보이는 경전전래 기사 |
| 2. 신라와 일본의 관계 | 2.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보이는 밀교경전 |
| 3. 일본과 수·당의 관계 | 3. 불교 미술품에 보이는 밀교경전 |
| III. 奈良朝 일본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 4. 諸章疏錄에 보이는 신라승 저작의 밀교 논서 |
| 1. 『日本書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 V. 중국사서에 보이는 신라밀교승 |
| 2. 『續日本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 VI. 결론 |
| 3.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밀교경전 | |

I. 문제의 소재

신라 역사는 크게 初期(건국부터 眞德女王<647~654>에 이르는 700여 년 간)와 中期(武烈王<654~661>부터 惠恭王<765~780>에 이르는 130여 년 간), 그리고 後期(宣德王<780~785>부터 敬順王<927~935>에 이르는 150여 년 간)의 3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곧 초기는 신라의 국운이 서서히 융성해져 興國의 기운이 싹이 트던 시대였으며, 중기는 唐 高宗의 永徽 5년(654)부터 德宗의 建中 원년(780)까지의 시기로, 唐에 있어서는 문화와 종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였다. 곧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로서, 이 시기에 신라는 당의 문화와 종교 등을 수용·정착 발전시켜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

러나 그렇게 융성했던 신라도 말기에 이르면 국운이 쇠퇴하고 또 귀족들 사이에서는 왕권 쟁탈이 일어나 드디어 고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3기로 나누어지는 신라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던 그리면서 唐과 日本(奈良時代)과 빈번한 문화교류를 이루었던 시기인 中期(654~780)를 중심무대로 불교 경전의 신라 전래 특히 密教經典의 新羅傳來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곧 본고는 한국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두 密教宗派인 神印宗(679년 개종)¹⁾과 總持宗(692년 개종)²⁾이 이미 開宗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신라불교와 펠레야 펠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奈良佛敎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수많은 현·밀경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사서에 보이는 많은 신라 밀교승들의 왕성한 활동 기사 등 역사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新羅 中期(654~780)에는 일본 奈良時代 이상의 많은 현·밀경전들이 전래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논증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논증을 위해

1. 통일신라 전·후기 삼국의 정세
2. 奈良朝 일본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3. 신라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4. 중국사서에 보이는 신라밀교승 등 4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것이다.

II. 통일신라 전·후기 삼국(당·신라·일본)의 政勢

통일신라기인 7~8세기경의 국제정세는 唐이라고 하는 대국이 중심무대가 되는 시대 곧 주변 국가들은 당으로부터 정치와 문화 등의 문물을 배워가던 그런 시대였다. 따라서 당시의 신라와 일본의 문물과 제도 그리고 종교 등의 문화는 대부분이 唐 문화의 移植, 말하자면 당 문화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시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항에서는 당시의 삼국 관계를 기록하고있는 『三國史記』 그리고 일본의 『日本書紀』와 『續日本紀』 등의 史書를 중심으로 당과 신라와 일본 삼국간에 펼쳐진 사신교류 및 유학승과 渡來僧

- 1) 拙稿,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1)-밀교종과 신인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제2집, 1993년, 중앙승가대학교.
- 2) 拙稿,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2)-밀교종과 총지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제4집, 1995년, 중앙승가대학교.

등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정치 및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까 한다.

1. 新羅와 唐의 관계

신라는 한반도 東南向인 東海에 위치한 관계로 당과의 관계는 물론 국가로서의 정치·문화의 발전 역시 고구려나 백제보다 매우 늦었다.³⁾ 예를 들어 불교의 初傳 年代도 고구려의 372년이나 백제의 384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535년이었으며, 불교 전래 과정 또한 중국을 통한 직접적인 것이 아닌 고구려를 통한 간접적인 전래였다.⁴⁾ 이와 같이 신라는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고구려나 백제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法興王의 불교공인(527년)⁵⁾-壽福滅罪, 興國利民이란 이념을 가진 불교를 정치이념으로 함-을 계기로 신라정신을 발휘하여 중국을 중주국으로 받들어 가면서 사신과 승려를 파견하여 고도로 발달한 중국의 정치제도와 문화를 수입하여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형성의 기틀을 다졌던 것이다. 곧 신라는 法興王 이후 進興王(法雲), 眞智王(金輪), 眞平王(白淨), 善德王, 眞德王이라는 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⁶⁾ 불교사상을 국가이념으로 하면서 신라야말로 佛國土이며, 불국토의 주인으로서의 부처님은 호국신이라고 하는 ‘護法護國精神’을 탄생시키며⁷⁾ 주변국인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차례 멸망시켜 668년에는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善德女王代(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인 640년)부터 통일 후인 785년까지 150년 간에 걸친 신라와 唐

- 3) 고구려는 355년(故國原王 25년), 백제는 372년(近肖古王 27년)에 중국으로부터 각각 冊封을 받지만, 신라는 그로부터 약 200년이나 뒤떨어진 565년(진흥왕 26년)에야 비로소 책봉을 받게 된다. 『三國史記』(이하 『史記』라 표기함)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25년 條, 「백제본기」 근초고왕 27년 條, 「신라본기」 진흥왕 26년 條.
- 4) 종래 한반도의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고구려는 華北(五湖十六國)불교, 백제는 중국의 江南(東晉)불교,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南海 경유로 인도불교를 직접 수용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鎌田茂雄, 『조선불교사』 p.9, 1987, 동경대학출판회.
- 5) 「遣使於梁貢方物」(『史記』 법흥왕 8년, 521년)條, 「梁氏遣使曰元表送沈檀香及經像(略)梁大通元年(법흥왕 14년, 527년)至此王因知佛僧可敬 勅許班行」(『해동고승전』권1. 流通「釋阿道」條)
- 6) 이기백, 『신라사상사연구』 p.39, 註 110, 1986, 일조각.
- 7) 김영태, 「불국토사상」, 『三國遺事 所傳의 신라불교사상연구』 1979, 신홍출판사.

양국의 使臣 往來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신라의 遣唐使 실태

<도표 1> 신라·당 양국의 사신 왕래 일람(640~785)

	년	월	회수	비고		년	월	회수	비고
1	善德女王 11년(642)	1.7	2		2	동 12년 (643)	1.9	2	慈藏 歸國 (636~643)
3	동 13년 (644)	1	1		4	동 14년 (645)	1	1	
5	眞德女王 元年 (647)	7	1	唐使 來朝	6	동 2년 (648)	1. 동계(2)	3	金春秋 等
7	동 4년 (650)	6	1		8	동 5년 (651)	2	1	
9	동 6년 (652)	1	1		10	동 7년 (652)	11	1	
11	武烈王 元年 (654)	5	1	唐使 來朝	12	동 2년 (655)	1	1	
13	동 3년 (656)	7	1		14	동 6년 (659)	4	1	
15	文武王 元年 (661)			唐使來朝 義湘入唐	16	동 2년 (662)	7	1	
17	동 5년 (665)			唐使 來朝	18	동 8년 (668)	春	1	
19	동 9년 (669)	5.5	2	信惠法師, 政官大書省이 됨 唐僧, (法安) 來朝, 唐使 來朝	20	동 11년 (671)			義湘 歸國 (661~671) 淋潤法師 歸國 (? ~ 671)
21	동 12년 (672)	9	1		22	동 14년 (674)	1	1	
23	동 15년 (675)	1	2		24	神文王 元年 (681)			唐使 來朝 (冊封次)
25	동 6년 (686)	2	1	禮記 및 曆書 (50권)보냄	26	동 12년 (692)			唐使 來朝 (2회) (甲祭 및 冊封次) 道證 歸國
27	孝昭王 8년 (699)	2	1		28	聖德王 元年 (702)			唐使 來朝 (甲祭 및 冊封次)

29	동 2년 (703)	1.7	2	金思議 入唐	30	동 3년 (704)			3월, 金思議 歸國(義淨, 金光明經 將來)
31	동 4년 (705)	3.9	2		32	동 5년 (706)	4.8.10	3	
33	동 6년 (706)	12	1		34	동 8년 (709)	6	1	
35	동 9년 (710)	1	1		36	동 10년 (711)	12	1	
37	동 11년 (712)	2	1	唐使 來朝	38	동 12년 (713)	2	1	
39	동 13년 (714)	2.2	2		40	동 14년 (715)	3	1	
41	동 15년 (716)	3	1		42	동 17년 (718)	6	1	
43	동 18년 (719)	1	1		44	동 21년 (722)	10	1	
45	동 22년 (723)	3.4	2		46	동 23년 (724)	2.12	2	
47	동 25년 (726)	4.5	2		48	동 26년 (727)	1	1	
49	동 27년 (728)	7	1		50	동 28년 (729)	1.9	2	
51	동 29년 (730)	2.10	2		52	동 30년 (731)	2	1	
53	동 32년 (733)	12	1		54	동 33년 (734)	4	1	
55	동 34년 (735)	6.11	2		57	동 36년 (737)	2	1	
58	孝成王 2년 (738)	3	1	唐使 來朝 (老子道德經將來)	59	동 4년 (740)			唐使 來朝 (冊封)
60	景德王 元年 (742)	12	1		61	동 3년 (744)	2.4	2	
62	동 5년 (746)	2	1		63	동 6년 (747)	1	1	
64	동 8년 (749)			天文博士 (1명) 漏刻博士 (6명) 을 돕	65	동 14년 (755)	4	1	
66	동 15년 (756)	2	1		67	동 17년 (758)	8	1	
68	동 21년 (762)	9	1		69	경덕왕 2년 (763)	4	1	
70	동 24년 (765)	4	1		71	惠恭王 3년 (767)	7	1	

72	동 4년 (768)	9	1	唐使 來朝 (冊封次)	73	동 8년 (772)	1	1	
74	동 9년 (773)	4.6	2		75	동 10년 (774)	4.10	2	
76	동 11년 (775)	1.6	2		77	동 12년 (775)	1.6	2	
78	동 15년 (779)			百高座法會 (地震)	79	宣德王 3년 (782)	1	1	
80	동 6년 (785)			唐使 來朝 (冊封次)					

상기 도표1에 의하면, 신라는 삼국통일 전부터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遣唐使를 파견하여 여러 가지 貢物을 바치기면서 宗主國인 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또한 당을 쫓아낸 이후에도 어쩔 일인지 신라왕의 교체 시에는 반드시 사신을 보내 前王에 대한 薦度齊와 나가서는 新王의 冊封式도 아울러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당을 종주국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4년 후에는 당마저 한반도에서 쫓아내어 사실상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으나 통일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당을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한반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라 문무왕의 강한 신념과 아울러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당의 문화를 어떻게든지 배워오겠다는 집념에서 오는 문무왕의 정치적 술수 내지는 계산 때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한반도의 주인공이 된 이후에도 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당의 각종 제도를 수용함과 동시에 당시 지식층으로서 신라문화의 대들보 격이었던 승려들을 당에 보내 찬란한 당의 불교문화를 수입해왔던 것이다.⁸⁾ 이제 당시의 唐 佛敎의 실태와 入唐 新羅留學僧들의 動態를 살펴보도록 하자.

8) 703년 義淨이 역출한 『금광명최승왕경』(10권)이 다음 해인 704년 견당사 김사양에 의해 신라에 장래되었던 사실만 보아도 당시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

(2) 唐 佛敎의 실태와 入唐 新羅留學僧의 동태

玄奘(602~664)이 17년 간에 걸친 인도 서역의 유학을 마치고 長安에 돌아온 해는 貞觀 19년인 645년이었다. 현장은 귀국 후 곧 太宗의 비호를 받으며 인도에서 將來해 온 梵本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세상을 마치기까지 약 20년 간에 걸쳐 그가 번역한 經論은 무려 75부 1335권이나 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중국불교사의 한 획을 그었던 新譯時代란 새 바람이었던 것이다.⁹⁾ 따라서 현장 시대(645년 이후)에는 현장의 新譯經典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 때문에 신라와 일본의 승려들 가운데는 현장의 新譯을 구하기 위해 入唐의 뜻을 가진 자가 적지 않았다. 海東의 華嚴宗家로 이름 높았던 신라의 元曉(617~686)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원효는 의상과 함께 현장의 신역경론을 구하기 위해 입당을 도모하였으나(661년) 생각지 않은 곳에서 ‘三界唯心 萬法唯識’의 도리를 깨달은 후 입당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에 돌아와 86부에 달하는 경론을 저술하면서 민중 교화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효의 교학은 華嚴宗의 완성자인 唐僧 法藏의 교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사적 측면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¹⁰⁾

한편 원효를 남겨 두고 혼자 入唐(661년)한 義湘(625~702)은 중국 華嚴宗祖 제2조인 智嚴和尚의 門下에 들어가 나중에 화엄종을 완성시킨 法藏과 함께 화엄교학을 연구한 후 文武王 11년(671)에 본국 신라에 귀국하여 浮石寺를 비롯하여 海印寺, 華嚴寺 등 소위 華嚴十刹을 건립하면서 海東 華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의상의 교학이 중국화엄종의 대성자 法藏의 교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그대로다.¹¹⁾

또 젊은 나이로 입당(627년)하여 眞諦 三藏의 교학을 이어받은 法常과 僧辨 두 분 스승 밑에서 유식을 연구한 圓測(613~696)도 빼놓을 수 없는 當代의 고승이다. 곧 원측은 貞觀年中(627~649)에 長安의 元法寺에 들어가 살면서 『毘曇』, 『成實』, 『俱舍』 등의 諸論을 배웠으며, 太宗 때에는 왕의 칙명을 받아 大德으로서 長安의 西明寺에 주석하였다. 또한 현장의 歸朝(645년) 이후에는 현장 슬하에서 『瑜伽論』과 『成唯識論』을 비롯한 현장

9) 『開元釋教錄』 卷8 (大正藏, 55:560). 田村圓澄, 「불교경전의 전래와 수용」, 『일본불교사』 卷1, 飛鳥時代, 1983년.

10) 鎌田茂雄, 『조선불교사』 p.74.

11) 『法藏和尚傳』(大正藏50, 285 上). 의상에 관한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坂本幸男, 「新羅義湘의 敎學」, 『華嚴敎學의 研究』. 木村清孝 「韓國佛敎における理事相即論의 展開」, 『南都佛敎』 49호, 1982. 吉津宣英 「義湘의 成佛論」, 『華嚴禪의 思想史的研究』 1985, 大東出版社. 鎌田茂雄, 「新羅義湘의 研究」, 『新羅佛敎史序說』, 1988,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역경의 신역경론들을 연구하여 많은 주석을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현장삼장의 제자로서 후에 法相宗을 수립한 慈恩大師 窺基(632~682)와 학설을 달리하는 바람에 慈恩派로부터 적대시 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大乘密嚴經』, 『華嚴經入法界品』 등을 역경할 때 원측은 則天武의 명을 받아 印度僧 地婆訶羅 밑에서 이들 경전의 証義役을 맡았으며, 또 695년에는 實叉難陀를 도와 『화엄경(80권) 역출에 힘쓰는 등 그가 남긴 업적은 대단하였다. 안타깝게도 고국 신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어 당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만 終南山 興敎寺에 玄奘과 나란히 묻혀 있는 그의 비석을 볼 때 그가 唐土에서 남긴 업적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바가 있다.¹²⁾

이들 외에도 신라 삼국통일 이전에 활약한 신라승으로 律學에 정통한 慈藏和尚과 밀교에 정통한 明朗·惠通·明曉 등의 入唐 求法僧들이 있다. 또 삼국통일 이후가 되면 새롭게 불어닥친 밀교의 구법을 위해 玄超·不可思議·義林·慧超·惠日·悟眞 등의 求法僧들이 長安에 들어가 金·胎 兩部 正順密敎思想家인 善無畏·金剛智 그리고 不空三藏의 슬하에 들어가 정순밀법을 배워오니 『釋門儀範』을 비롯해서 오늘날 전해지는 密敎의 儀軌法은 바로 이들 밀교승들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다. 이들 밀교승들에 대하여는 본고 V. 「中國史書에 보이는 신라밀교승」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제 참고로 삼국통일 전·후기에 활약했던 入唐 新羅留學僧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入唐 新羅留學僧 일람표(630~800)

번호	僧名	출국년대	귀국년대	비고(著述)	典據
1	明朗(612~682)	632년 (善德女王 元年)	635년		『遺事』
2	玄恪	貞觀年中 (627~650)			『遺事』, 『高僧傳』 (歸竺諸師條)
3	阿離耶跋摩	상동			상동
4	慧業	상동			상동
5	慈藏 (592~672)	636년 (善德女王 5년)	643년		『史記』, 『遺事』 (慈藏定律條)
6	玄太	永微 이후 (650~656)			『高僧傳』
7	義湘 (625~702)	661년 (文武王 元年)	670년 (文武王 11년)		『遺事』 (義湘傳敎條)

12) 鎌田茂雄, 『조선불교사』 p.84. 원측에 관한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趙明基 「원측의 사상」 『震壇學報』 16호, 1949. 稻葉正就, 「朝鮮出身圓測法師について」 『조선학보』 2집, 1951. 申賢淑, 「唐 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 『불교학보』 17집, 1980

8	惠通 (640~710)	?	665년 (文武王 5년)		『遺事』 (惠通降龍條)
9	慧輪			666년(文武王 6년) 『自唐向天竺』	『高僧傳』
10	圓測 (613~696)	627년 (眞平王 49년)	唐歿		『智異山 大華嚴寺史籍』 『宋高僧傳』
11	僧實 외 10명	636년 (善德王 5년)	?		『遺事』 (慈藏定律條)
12	圓勝	636년 이전	643년 (善德王 12년)		『遺事』(慈藏定律條) 『續高僧傳』(慈藏傳)
13	勝莊 ?(640~710)	?	690년경	(義淨, 菩提流支) 의 證義役	『開元釋教錄』 9권 『貞元釋教錄』 14권
14	道證 ?(640~710)	?	692년 (孝昭王 元年)		『史記』
15	勝詮?		상동		『遺事』(勝詮觸體條)
16	明曉 ?(670~740)	?	701년경	『不空羼索陀羅尼經』 장래	『開元釋教錄』 제9권 (大正藏 권 55권)
17	崇濟?	?	729년 이전		『遺事』(眞表傳簡條)
18	玄超 ?(680~750)	?	730년경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 장래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 (大正藏 권 51)
19	不可思議 ?(700~770)	?	740년경	『大日經供養次第法疏』 (2권)	『大日經供養次第法疏』 (大正藏 권 39)
20	義林 ?(703~805)	?	740년경	國師. 鎮國道場大德이사리 (805년경)	『內證佛法相承血脈譜』 (日本大藏經 권 44)
21	惠超 ?(692~780)	?	唐歿	『文殊菩薩舍利經』	『往五天竺國傳』
22	無漏 ?(~758)		唐歿(758년경)	不空三藏과 관계 인물	『宋高僧傳』 (神僧傳) 『佛祖歷代通載』 (권 13)
23	惠日 ?(750~820)	781년	800년경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 各種儀軌書 장래	『大唐青龍寺三朝供奉行狀』 (大正藏 권 50)
24	悟眞 (?~789)	?	唐歿(789년)		상동
25	均亮?			惠果-義操-均亮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 (大正藏 권 51)

*. 승려의 생멸 연대 중 (?)표시는 본인이 추정한 年代를 의미함

2. 신라와 일본의 관계

百濟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枕流王 元年(384년) 東晉의 摩羅難陀에 의해서다.¹³⁾ 중국 南方佛敎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뭇나라가 서울을 建康에 둔 이후로 이후 東晉을 거쳐 南朝의 梁나라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된다. 梁의 武帝는 「釋敎에 빠진 梁武帝」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불교에 심취한 왕으로서 同泰寺, 大莊嚴寺 등의 대사찰을 비롯한 많은 사찰을 전국에 세웠다. 그의 이름이 불교 弘布에 전 생애를 바친 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불교에 대한 그의 치적 때문이었던 것이다.

백제불교는 바로 이 江南佛敎로부터 전래된 불교였다. 中國 江南불교를 수입해온 백제는 阿莘王 원년인 392년, 「佛法을 崇信하여 福을 구하시오」라는 召勅¹⁴⁾을 계기로 민중에 불법이 弘布되었으며, 또 聖明王代(523~554)에 이르러서는 백제불교의 황금기라 일컬어질 만큼 불교가 盛況을 이루게 되었다. 곧 聖明王 4년인 526년에는 求法次 인도에 갔던 僧 謙益이 수많은 경론을 가지고 天竺僧 倍達多三藏과 함께 귀국한 후 五分律을 번역하고 律宗을 開宗하였으며, 또 19년인 541년에는 梁나라에 간 朝貢使가 梁武帝가 보낸 毛詩博士와 함께 열반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과 工匠, 畫師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외에도 聖明王은 재위 2년에 신라 皇龍寺에 버금가는 대사찰인 王興寺를 창건(634년 완성)하였으며 나가서는 僧 30인을 출가시키는 등 불법 흥포에 힘썼다. 死後 法王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만 보아도 불교에 대한 그의 신앙심은 대단히 돈독하였던 것 같다.¹⁵⁾ 그리고 聖明王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백제불교의 일본전래 사건으로 『日本書紀』 제19, 欽明天皇 13년(552년)條에 나타난 다음의 기록이다.

「百濟聖明王(略)獻釋迦佛金銅像一身區.幡蓋若干.經論若干卷」¹⁶⁾

13) 『海東高僧傳』 卷 1, 流通 「釋摩羅難陀」條에는 「百濟第十四枕流王即位元年九月從晉乃來王出郊迎之 激致宮中敬奉供養」이라 하여, 백제의 불교 전래년을 384년이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 卷 22, 椎古天皇 32년(623)條 <觀勒>의 上表文에는 「夫佛法自西國至于漢經三百歲乃傳之至於百濟國而僅一百年矣」라 하여,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해를 523년경(623년~100년)이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鎌田茂雄氏は 관록의 말은 백제 불교 초 전년도부터가 아닌 聖明王의 佛敎 公認年度부터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불교사』 p.18

14) 『遺事』 卷 3, (大正藏49, 986 上)

15) 『史記』 卷 26, 聖明王 19년(541)條

16) 『上宮聖德法王帝說』에는 538년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하 佛敎의 日本傳來란 주제를 가지고, 백제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 그리고 신라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백제불교의 일본전래와 도래승의 활약 (백제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

欽明天皇 13년(552년), 백제 聖明王이 사신을 통해 金銅釋迦像, 幡蓋, 經論 등을 일본에 보낸 것을 계기로 일본에 불교가 전해졌으며 이후 백제와 일본사이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불교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 欽明天皇 15년인 554년에는 曇惠를 비롯한 승려 9명이 이미 일본에 건너갔던 道深 등 승려 7명과 교대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으며,¹⁷⁾ 또 敏達천황 6년인 577년에는 禪師와 比丘尼 그리고 律師, 呪禁師 등의 승려들과 經論은 물론 造佛工, 造寺工 등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보내졌으며,¹⁸⁾ 敏達天皇 12년인 583년에는 후에 攝州 劔尾山寺의 寺主가 된 승려 日羅가 일본 왕의 요청을 받고 건너갔다.¹⁹⁾ 또 用明天皇 2년인 587년에는 후에 四天王寺의 주지로 임명받은 바 있는 승려 豐國이 일본 穴穗部皇子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며²⁰⁾ 崇峻천황 원년인 588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法興寺(飛鳥寺) 창건을 위해 慧聰 阿闍梨를 비롯하여 聆照·令威·惠衆·惠宿·道嚴·令開 등 律師 僧 6인과 寺匠(2인), 鑪盤博士, 瓦博士, 畫師 등이 건너갔으며,²¹⁾ 또 推古천황 10년인 602년에는 나중에 僧正이 된 三論僧 觀勒이 曆本과 天文, 地理書 등의 遁甲方術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불교 전래에 큰 기여를 했던 蘇我氏의 願刹인 元興寺에 주석하면서 祖玉陣, 高聰, 山背臣日立 등에게 曆法과 天文遁甲 그리고 方術 등을 가르침으로써 日本 曆法の 원조로 자리매김 되었다.²²⁾

이처럼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위에서 살펴 본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 졌으며, 양국의 이러한 뜨거운 관계는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는 660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것이다.²³⁾ 그리고 이와 같은 백제불교의 受容속에서 593년에는 四天王寺, 596년에는 法興寺 그리고 639년에는 百濟大寺를 창건하면서, 신

17) 『日本書紀』 卷 19.

18) 『日本書紀』 卷 20.

19) 『日本書紀』 卷 20.

20) 『日本書紀』 卷 21.

21) 『日本書紀』 卷 21.

22) 『日本書紀』 卷 22.

23) 백제불교의 일본 전래에 관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黃壽永, 田村圓澄 共著 『百濟文化と 飛鳥文化』 1978, 吉田弘文館. 金煥泰 『백제불교사상연구』 1985, 동국대 출판부

라와 당의 불교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제 참고로 불교전래 이후의 백제와 일본의 불교관계 年表 내지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渡日僧들의 실태를 도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도표 3> 백제와 일본의 佛敎關係 年表

서기(년)	백제	일본	특기사항
384	枕流王 元年	仁德 72년	9월, 胡僧摩羅難陀가 倭나라에서 佛像 將來(『史記』(24.海東1))
385	동 2년	동 73년	2월, 漢山에 절을 세워 僧 12인을 득도 『遺事』
392	阿莘王 元年	동 80년	2월, 佛法崇信을 命함 『遺事』
502~519	武寧王代	武烈朝	백제승 發正 梁나라에 가서 불법 배운 후 30여 년만에 귀국(觀音驗記)
527	聖王 5년	繼體 21년	梁皇帝를 위해 熊川에 大通寺 창건
538	동 16년	宣化 3년	12월, 聖王 사신을 일본에 보내 太子像, 灌佛器, 佛書를 大和朝廷에 보냄
541	동 19년	欽明 2년	梁나라에 사신을 보내 涅槃經疏, 医工, 畫師, 毛詩박사를 요청 (『梁書』 54, 『史記』 26)
545	동 23년	동 6년	9월, 백제왕 일본천황과 일제중생을 위해 丈六佛像을 보냄 『書紀』 19
552	동 30년	동 13년	10월, 백제 聖王 일본에 釋迦佛金銅像 幡蓋 經論을 보냄 『書紀』 19
554~597	威德王代	欽明朝-敏達朝	鄭智遠, 金銅如來立像을 조성 『金石遺文』 104
554	威德王 元年	欽明 15년	2월, 僧 曇惠 등 9인을 일본에 보내 이전에 보낸 僧 道深 등 7인과 교대시킴 『史記』 19
555	동 2년	동 16년	8월, 백제 100人을 득도시킴 『書紀』 19
557~577	威德王代	欽明朝	百濟僧 玄光 陣에 가서 慧思로부터 法華安樂行門을 받아 옴 『宋高僧傳』 18
562	동 9년	동 23년	일본, 백제 및 고구려로부터 內外典, 藥書, 明堂圖, 佛像 등을 將來 『書紀』 19
577	동 24년	敏達 6년	11월, 威德王 경론, 율사, 선사, 비구니, 呪禁師, 造佛工, 造寺工 등 6인을 일본에 보내 難波의 大別王寺에 安置함 『書紀』 20
583	동 30년	동 12년	僧 日羅 일본에 감 『書紀』 20
584	동 31년	동 13년	9월, 鹿深臣과 佐伯連 백제에서 彌勒石像과 佛像을 가지고 옴, 『書紀』 20
587	동 34년	用明 2년	6월, 善信尼 戒法 受學을 위해 백제에 보내줄 것을 大臣 蘇我馬子에 요청 『書紀』 21

588	동 35년	崇峻 원년	백제, 일본에 金堂의 本佛과 더불어 僧 令照律師와 그의 제자 惠聰, 令威法師과 그의 제자 惠勳, 道嚴法師과 그의 제자 令契 등 6인과 工人 4인을 보냄. 百濟寺에 昌王法師, 令照律師, 惠聰法師과 더불어 露盤師, 寺師, 瓦師를 보냄. 善信尼 수계를 위해 백제로 건너 감. 『元興寺緣起』 일본에 僧 惠聰, 令斤, 惠寔 그리고 佛舍利를 보냄. 僧 令威, 惠宿, 道嚴, 令開와 寺工 畫工을 일본에 보냄. 『書紀』 21
590	동 37년	동 3년	善信尼 등 백제에서 귀국. 『元興寺緣起』 『書紀』
594	동 41년	椎古 2년	王延孫 부모를 위해 金銅釋迦像을 조성 『金石遺文』
595	동 42년	동 3년	백제승 惠聰 來日하여 고구려승 惠慈와 함께 三寶의 棟梁이 됨. 『書紀』 22
596	동 43년	동 4년	11월, 法興寺 준공되고 慧慈, 慧聰 法興寺에 거주함. 『書紀』 21, 『元興寺緣起』
597	동 44년	동 5년	백제 부여에 天王寺 造營함
599	法王 元年	동 7년	12월, 살생을 금함. 『史記』 27, 烏舍寺 창건 『金石遺文』
600~640	武王代	椎古朝-舒明朝	武寧王妃 彌勒寺 건립을 발원함. 『遺事』 2
600	武王 元年	椎古 8년	정월, 王興寺 창건, 僧 30인 득도. 『史記』 27
602	동 3년	동 10년	백제승 觀勒 曆本 天文地理書, 遁甲方述書 가지고 來日함. 『書紀』 22
609	동 10년	동 17년	4월, 道欣, 慧彌 등 백제승 11인 일본에 漂流, 元興寺에 살게 함. 『書紀』 22
623	동 24년	동 31	4월, 백제승 觀勒 僧正에 임명됨. 『書紀』 22
627년경	武王代	椎古朝	貞觀初 백제승 惠顯 법화경 독송을 業으로 함, 修德寺에 살다가 達孛山에서 죽음. 『續高僧傳』 28, 『遺事』 5
634	동 35년	舒明 6년	2월, 王興寺 준공함. 『史記』 27
639	동 40년	동 11	11월, 백제 帝釋寺에 落雷, 佛堂, 浮屠 燒盡됨 『觀音驗記』
645	義慈王 5년	大化 元年	신라 선덕여왕 경주에 皇龍寺塔을 건립, 이를 위해 백제 工匠들 초청하여 土木業에 종사시킴 『史記』 5, 『遺事』 3
648	동 8년	동 4년	2월, 일본 學問僧을 三韓에 보냄 『書紀』 25
654	동 14년	白雉 5년	정월, 寺刹을 造立함 『金石遺文』

655	동 15	齊明 원년	5월, 말이 烏舍寺에 들어가 울면서 道場을 맴돌다 죽음. 『史記』 28
659	동 19년	동 5년	烏舍寺의 大赤馬 道場을 돛 『遺事』 1
660	동 20년	동 6년	5월, 폭풍우와 지진으로 天王寺塔과 白石寺 강당 흔들림 『史記』 28, 8월, 義慈王 唐將 蘇定方에 항복함, 蘇定方 부여 定林寺塔에 「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 각인함, 僧 道深 任存峯에 올라가 唐軍과 싸움
661		天智朝	백제승 弘濟 일본에 건너와 三谷寺를 造立함, 『백제승 義覺 일본에 건너와 百濟寺에 거주함, 백제승 圓勢 高宮寺에 거주함. 『靈異記』 上
673		天武 2년	4월, 全氏들 阿彌陀佛三尊 四面石像을 세움. 『金石遺文』 108
678		동 7년	7월, 四面石像을 조성. 『金石遺文』 109
683		동 12년	백제승 道藏 비를 내리게 함. 『書紀』 29
685		동 14년	8월, 백제승 道寧 비를 내리게 함 『釋書』, 백제승 常輝, 法藏에게 封 30戶를 내림. 『書紀』 29
687-696		智統朝	백제선사 多羅常 大和國 法器山寺에 거주함. 『靈異記』 上
689		持統 3년	2월, 阿彌陀佛과 諸佛菩薩 石像을 조성. 『金石遺文』 110
719		養老 3년	9월, 金馬에 있는 彌勒寺에 지진이 있었음. 『史記』 8

* 참고: 史記=三國史記, 觀音驗記=觀世音應驗記, 釋書=元亨釋書, 遺事=三國遺事, 金石遺文=韓國金石遺文(황수영 편저), 海東=海東高僧傳, 書紀=日本書紀, 元興寺緣起=元興寺伽藍緣起, 靈異記=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도표 4> 한반도에서 건너간 渡日僧 일람

	연도	백제	고구려	신라	비고
1	(538)				불교전래
2	舒明 13년(552)				상동
3	동 15년(554)	曇惠 등 9인, 道深 등 7인			
4	敏達 6년(577)	율사, 선사, 비구니, 呪禁師 각 1명			
5	동 13년(584)	善信尼, 禪藏尼, 惠善尼	惠便, 法明尼		
6	崇峻 원년(588)	惠摠, 令斤, 惠寔, 聆照, 令藏, 惠衆, 惠宿, 道嚴, 令開			

7	동 3년(590)	妙光尼, 德齊	大伴伯夫人	善妙尼	
8	椎古 3년(595)	慧聰	慧慈		
9	동 10년(602)	觀勒	僧隆, 雲聰		
10	동 17년(609)	道欣, 惠彌			
11	동 22년(614)				蘇我馬子が 병들어 快癒를 위해 千名을 출가시킴
12	동 33년(625)		惠灌		
13	人和 원년(645)		狛大法師, 道證		
14	齊明 원년(655)	義寬(靈)			
15	동 2년(656)	法明尼(扶)			
16	동 6년(660)	覺從			
17	동 7년(661)	道寧(釋)			
18	天智 원년(662)		道顯		
19	동 4년(665)				330인 출가
20	동 7년(668)			道行	
21	동 10년(671)				大海人 출가
22	天武 6년(677)			僧 3인(漂着)	
23	동 9년(680)				100인, 100인 출가
24	동 11년(682)				140여 인 출가
25	동 12년(683)	道藏			30인 출가
26	동 13년(684)	僧尼 (武藏國安置)			
27	동 14년(685)	常輝, 法藏			
28	朱鳥 원년(686)			行心	3인, 70인, 80인, 100인 출가
29	持統 원년(687)			僧尼 (武藏國安置)	
30	동 4년(690)			詮吉	
31	동 7년(693)		福嘉		
32	동 8년(694)				104인 출가

(2) 신라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00년간에 걸친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게 되고 지금까지 적대시해 오던 신라 곧 명실공히 한반도의 주인공이 된 統一新羅와 새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그리고 새롭게 맺은 신라와의 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정치적, 문화적으로 기초를 다지게 했던 奈良文化와 天平文化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된다. 신라불교가 일본불교와 交流를 갖기 시작한 것은 6세기 말부터이다. 곧 『書紀』 권 제20, 敏達天皇 8년(579)條의 「冬十月, 新羅遣祝叱政奈末進調, 並送佛像」이라는 기사가 그 始源으로 신라왕이 불상을 일본에 보내면서 양국의 불교교류가 시작된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眞平王 38년(推古 24)인 616년에 奈末竹世士를 통하여 황금 불상이 일본에 보내졌으며(『書紀』 卷 22) 또 진평왕 45년(추고 31)인 623년에는 大使 奈末智洗爾를 통하여 불상과 金塔 그리고 舍利와 灌頂幡²⁴⁾ 등이 보내져 葛野秦寺와 四天王寺에 안치되었으며,²⁵⁾ 그리고 이때에 歸唐 日本留學僧인 惠齊와 慧光 그리고 醫師인 慧日과 福因 등이 新羅使를 따라 함께 일본에 가게 되었다.(『書紀』 卷 22) 말하자면 신라는 불교를 통해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참고 삼아 統一 前後期の 신라와 일본의 교류상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도표 5> 신라와 일본의 교류상황표 1 (579년~667년 : 통일신라 이전)

번호	年代	遣日本使	遣新羅使
1	579년(眞平王 원년, 敏達 8년)	0	
2	610년(동 32년, 推古 18년)	0	
3	616년(동 38년, 동 24년)	0	
4	623년(동 45년, 동 32년)	0	
5	638년(善德女王 7년, 舒明 10년)	0	
6	640년(동 9년, 동 12년)	0	
7	642년(동 11년, 皇極 원년)	0	0

24) 天平 19년 刊記의 『法隆寺資財帳』에는 「小帳壹伯肆拾捌首」, 「灌頂幡壹拾肆具」라는 기사가 보인다. 『日本書紀』下, p.205, 註 23, 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25) 太子傳古今日錄抄所引大同緣起延曆三十二年 四天王寺資財帳逸文에 「二重金堂一基 阿彌陀三尊 右惠(慧)光法師從大唐請座」(『日本書紀』下, p.205, 註 21)라는 기사가 보이나, 이들 將來品들은 唐이 아니라 신라에서 보낸 請來品이었을 것이다.

8	645년(동 14년, 大化 원년)	0	
9	646년(동 15년, 동 2년)	0	0
10	647년(眞德 여왕 원년, 동 3년)	0	
11	648년(동 2년, 동 4년)	0	649년
12	650년(동 4년, 白雉 원년)	0	
13	651년(동 5년, 동 2년)	0	
14	652년(동 6년, 동 3년)	0	
15	653년(동 7년, 동 4년)	0	
16	654년(武烈王 원년, 동 5년)	0	
17	655년(동 2년, 齊明 원년)	0	
18	656년(동 3년, 동 2년)	0	657년

<도표 6> 신라와 일본의 교류상황표 2 (668년~785년 : 통일신라 이후)

1	668년(文武王 8년, 天智 7년)	0	0
2	669년(동 9년, 동 8년)	0	670년
3	671년(동 11년, 동 10년)	0	
4	672년(동 12년, 天武 원년)	0	
5	673년(동 13년, 동 2년)	0	
6	675년(동 15년, 동 4년)	0	676년
7	678년(동 18년, 동 7년)	0	
8	679년(文武王 19년, 동 8년)	0	
9	680년(동 20년, 동 9년)	0	
10	681년(神文王 원년, 동 10년)	0	0
11	682년(동 2년, 동 11년)	0	
12	683년(동 3년, 동 12년)	0	
13	684년(동 4년, 동 13년)	0	0
14	685년(동 5년, 동 14년)	0	
15	687년(동 7년, 持統 원년)	0	

16	689년(동 9년, 동 3년)	0 (遣唐 留學僧인 智宗, 義德, 淨願과 함께 귀국)	
17	690년(동 10년, 동 4년)	0	
18	692년(孝昭王 원년, 동 6년)	0	
19	693년(동 2년, 동 7년)	0	
20	695년(동 4년, 동 9년)	0	0
21	697년(동 6년, 文武 원년)	0	698년
22	700년(동 9년, 동 4년)	0	0
23	703년(聖德王 2년, 大寶 3년)	0	0
24	705년(동 4년, 慶應 2년)	0	704년
25	709년(동 8년, 和銅 2년)	0	706년
26	714년(동 13년, 동 7년)	0 (使臣의 護衛를 위해 騎兵 990인을 차출함)	712년, 718년 (遣新羅留學生 : <行善>에 대한 最終기사)
27	719년(동 18년, 養老 3년)	0	0
28	721년(동 20년, 동 5년)	0	722년
29	723년(동 22년, 동 7년)	0	724년
30	726년(동 25년, 神龜 3년)	0	
31	732년(동 31년, 天平 4년)	0 (新羅使의 來日시기가 3년으로 됨)	0
32	735년(동 34년, 동 7년)	0 (일본을 王城國이라 칭했다 하여 돌려보냄, 이후 양국관계 惡化됨)	736년
33	738년(孝成王 2년, 동 10년)	0 (太帝府에서 돌려보냄)	740년
34	742년(景德王 원년, 동 14년)	0	0 (받아 들이지 않음)
35	743년(동 2년, 동 15년)	0 (받아 들이지 않음)	
36	752년(동 11년, 天平勝寶 4년)	0	0

37	760년(동 19년, 寶字 4년)	0	753년(그냥 귀국시킴)
38	763년(동 22년, 동 7년)	0	
39	774년(惠恭王 10년, 寶龜 5년)	0	779년
40	780년(宣德王 원년, 동 11년)	0	

*. 참고 : 0표는 사신왕래가 있었음을 의미함.

원래 신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동남방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疏遠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까닭은 백제가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원했던 양국의 관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뒤바뀌지게 된다. 곧 신라의 삼국통일 후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곧 唐은 당대로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그것을 명분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한반도를 屬領化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 비록 당의 힘을 빌려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마저 한반도에서 쫓아내어 그야말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를 꾀하였고,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3의 세력인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때는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에 대항한 적이 있었으나, 백제가 멸망된 지금에 와서는 신라가 언제 일본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군사적 긴박감으로 인해 신라와 자연 和解政策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²⁶⁾ 정책 변환의 시기는 文武王 8년인 天智 7년(668년)이었다. 곧 문무왕 8년인 668년 9월 고구려의 寶藏王은 羅·唐 聯合軍 앞에서 항복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600여 년 간 지속돼오던 신라와 당의 밀월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는데, 그해 9월에 신라는 使臣 金東嚴을 일본에 보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의 內臣인 中臣鎌足은 신라통일의 英雄인 金庾信에게 배 한 척을 보냈으며, 일본왕 天智천황은 배 한 척을 신라 문무왕에게 선물함과 동시 道守臣 麻呂와 吉士 小鮪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신라 사신 김동엄을 신라까지 배웅하게 했던 것이다.²⁷⁾ 다시

26) 入日本 新羅使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당시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곧 690년(持統 4년) 이전까지는 일본(大和朝廷)의 경계가 엄했기 때문에 新羅使들은 거의 서울인 難波에는 가지 못하고 筑紫에서 용무를 마치고 그대로 신라로 돌아오곤 했다.

27) 『日本書紀』卷 27, 天智天皇 7년 條

말해 문무왕 8년에 있었던 신라 사신 김동엄의 渡日은 신라와 일본 관계를 對立에서 和親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해로서, 이후 두 나라는 매년 사신을 서로 교환하면서 교류의 깊이를 더해 갔던 것이다.²⁸⁾

(3) 遣唐 및 遣新羅 日本學問僧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와 일본 관계가 대립으로부터 和親으로 전환된 시기는 문무왕 8년, 그러니까 신라 사신의 日本入朝 때부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사신 교류의 絶頂期는 (遣新羅) 大使와 小使가 임명된 676년(天武 5년/文武王 16년)부터 일본의 右大臣인 藤原不比等이 신라 사신 金信福 등을 궁궐인 弁宮廳으로 안내했던 709년(聖德王 8년)경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일본 불교계가 신라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遣唐 및 遣新羅 日本學問僧들에 대한 기사이다.

<도표 7> 견당 및 견신라 일본학문승 일람(623~718)

번호	僧名	出發年度	歸國年度	船便	種類	典據	備考
1	惠濟	?	推古 31년 (623)	신라(歸)	遣唐	『書紀』	
2	惠光	?	推古 31년 (623)	신라(歸)	遣唐	『書紀』	
3	靈雲	?	舒明 4년 (632)	신라(歸)	遣唐	『書紀』	
4	僧旻	推古 16년 (608)	舒明 4년 (632)	신라(歸)	遣唐	『書紀』	645년 國博士가 됨
5	慧隱	추고 16년 (608)	舒明 11년 (639)	신라(歸)	遣唐	『書紀』	640년과 652년에 無量壽經을 설함
6	惠雲	?	舒明 11년 (639)	신라(歸)	遣唐	『書紀』	
7	請安	추고 16년 (608)	舒明 12년 (640)	신라(歸)	遣唐	『書紀』	

28) 『日本書紀』에는 642년에야 비로소 遣新羅 日本使의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遣唐 日本學問僧들이 일본에 귀국하기 전에 줄곧 신라에 들러 신라 배를 타고 귀국한 사실(623년부터 실시)을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견신라 일본사>는 623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道昭 등 15명	白雉 4년 (653)	齊明 7년 (661)	遣唐使(2차)	遣唐	『書紀』	
9	智通	齊明 4년 (658)	?	신라(出, 歸)	遣唐	『書紀』	
10	智達	제명 4년 (658)	?	신라(出, 歸)	遣唐	『書紀』	
11	妙位 法勝	?	天智 7년 (668)	당	遣唐	『書紀』	
12	觀常	?	天武 14년 (685)	신라(出, 歸)	遣新羅	『書紀』	
13	雲觀	?	天武 14년 (685)	신라(出, 歸)	遣新羅	『書紀』	
14	智隆	?	持統 원년 (687)	신라(出, 歸)	遣新羅	『書紀』	
15	明聰	?	持統 3년 (689)	신라(出, 歸)	遣新羅	『書紀』	
16	觀智	?	持統 3년 (689)	신라(出, 歸)	遣新羅	『書紀』	
17	智宗	白雉 4년 (653)	持統 4년 (690)	신라(歸)	遣唐	『書紀』	
18	義德	백지 4년 (653)	持統 4년 (690)	신라(歸)	遣唐	『書紀』	
19	淨願	?	持統 4년 (690)	신라(歸)	遣唐	『書紀』	
20	弁通	持統 7년 (693)	?	신라	遣新羅	『書紀』	
21	神叡	大寶 원년 (701)	?	신라	遣新羅	『書紀』	717년 을사로 임명 됨, 따라서 716년까지는 귀국한 것으로 보임
22	義法, 義基, 惣集, 慈定, 淨達	?	慶雲 4년 (707)	?	遣新羅	『續日本紀』	
23	道慈	大寶 원년 (701)	養老 2년 (718)	遣唐使(7차)	遣唐	『續日本紀』	
24	智鳳 등 3인	大寶 3년 (703)	?	?	遣唐	『三國佛法傳統緣起』	
25	行善	?	養老 2년 (718)	?	遣新羅	『續日本紀』	
26	玄昉	養老 원년 (717)	天平 7년 (735)	遣唐使(8차)	遣唐	『續日本紀』	僧正이 됨

田村圓澄 씨는 저서 『일본불교사』에서 불교전래부터 平城遷都까지의 일본불교사 곧 飛鳥·白鳳時代の 일본불교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었다. 곧 그는 佛敎 傳來年度인 552년부터 聖德太子의 歿年인 622년까지의 70년 간은 제1 단계로, 623년부터 法隆寺 燒失年度인 670년까지의 48년 간은 제2 단계로, 그리고 671년부터 平城遷都年度인 710년까지의 40년 간은 제3 단계로 나누고 있다.²⁹⁾ 이에 본 고에서는 田村圓澄씨의 설에 동의하여 비조·백봉시대의 일본불교사를 세 단계로 구분한 후, 앞에서 제시한 도표 7을 참조해 가면서 이들 세 시대의 불교적 특징을 고찰해보려 한다.

먼저 제1 단계 시대(552~622)의 특징은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來日한 渡來僧에 의한 불교, 다시 말해 慧慈(고구려)·慧聰(백제)·觀勒(백제)·惠灌(고구려) 등의 도래 승에 의해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백제불교가 일본에 이식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2 단계(623~670)의 특징은 일본이 唐과 교류를 시작하는 시기로서, 지금까지의 백제 및 고구려로부터의 경로 외에 당으로부터의 경로를 새로 개척한 시기, 말하자면 僧旻(608~632 : 이하 당의 유학기간을 나타냄), 惠隱(608~639), 道昭(653~661) 등의 <遣唐日本學問僧>과 舊佛敎者(백제 및 고구려승)에 의한 融合佛敎였다고 하겠다. 단지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견당일본학문승>들이 신라를 경유해서 일본에 돌아왔다는 점이다. 곧 도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惠濟, 惠光(623년 귀국), 靈雲, 僧旻(632년 귀국), 慧雲, 惠隱(639년 귀국), 請安(640년 귀국), 智通, 智達(658년 출국)등 9인의 <견당일본유학승>들 중 智通과 智達 2인은 일본을 떠나 당에 도착 할 때까지 줄곧 <新羅送使>에 의해 안내되었으며, 나머지 7인 또한 당에서 신라를 거쳐 일본에 귀국할 때까지 줄곧 <신라송사>에 의해 안내되었다는 사실이다.³⁰⁾

당시 신라는 562년 진흥왕 23년)의 大伽倻 정복을 계기로 해서 海上 航海의 첨단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해상 항로까지도 장악하였다. 곧 583년(진평왕 5)에 설치한 兵部 소속의 선박관리서나³¹⁾ 新羅道라고 하는 海上 항로가 바로 그것이다. 곧 「取新羅道 泊于萊州 遂到于京」< 25권. 654년(孝德 5년條)> 라고 한 『일본서기』의 표현처럼 당시 신라는 <新

29) 『日本佛敎史』卷 4, 「百濟·新羅」

30) <新羅送使>는 견당 일본 학문승들을 <新羅道>를 통하여 일본-신라-당-신라-일본까지 안전하게 移送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임명된 관리들이다. 곧 그들은 탑승자와 선박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탑승자 <견당일본학문승>들을 唐에 그리고 일본의 筑紫나 難波에까지 이송했던 것이다.

31) 「春正月始置船府署大監弟監各一員」 『史記』 眞平王 5년 條

羅道>를 통해서 많은 학문승들을 중국에 보내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新佛敎를 배워 오게 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中國佛敎 重視의 전통은 2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 내려왔던 것이다. 곧 도표 7의 <견당 및 견신라 일본학문승 일람> 이 바로 그것으로서, 신라는 623년경부터 일본↔신라↔당을 잇는 소위 <신라도>라고 하는 해상 교통의 항로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해상 교통의 항로는 일본(大和朝廷)이 자국의 승무원과 선박으로 당나라를 직접 왕래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장악하고 있던 <新羅道 : 일본↔신라↔당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新羅送使 : 신라도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출입을 관리하는 신라 관리>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당과의 유일한 왕래 수단이었던 해상 항로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에 있어 이 <新羅送使>나 <新羅道>는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였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당 문화의 수입은 물론 나아가서는 신라 문화까지도 견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견당 일본학문승들은 <新羅送使>를 따라 <新羅道>를 통해서 입당 내지 귀국하였으며 특히 귀국 시에는 신라에 들러 圓光과 慈藏 등의 <귀당 신라학문승>들에 의해 구축된 신라의 불교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나가서는 그것을 일본에 이식시켰던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면, 제2단계 시대의 특징은 구불교와 신불교의 융합시대 다시 말해 백제·고구려의 舊佛敎와 당·신라의 新佛敎의 융합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3 단계(671~710)의 시대는 신라불교의 이식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이 시기는 신라가 한반도의 유일한 주인으로 행세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義湘, 元曉, 憬興, 道證, 義寂 등 기라성 같은 불교 학문승들이 활약하던 시대, 말하자면 신라불교의 황금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으며,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당의 관계도 소강상태에 있던 까닭에 일본의 대외무역 창구는 자연히 신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신라와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표 7에 보이는 <遣新羅使> 및 <遣新羅日本學問僧>(13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곧 685년 귀국의 觀常, 雲觀을 비롯하여 智隆, 明聰, 觀智(689년 귀국) 그리고 693년 출국한 弁通, 神叡와 700년 귀국한 義法, 義基, 愍集, 慈定, 淨達 등의 <견신라일본학문승>들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융성한 신라불교문화를 배우기 위해 보내진 유학승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3단계 시대의 특징은 신라불교의 이식기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신라불교의 일본불교 이식이야말로 나라조의 대대적인 사경불사³²⁾ 내지는 오늘날의 일본불교를 구축케 한

32) 나라조의 사경 및 刊經佛事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논문들이 있다.

원동력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과 隋(唐)의 관계

앞의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불교가 중국불교와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제2 단계(671~710) 시기부터였다. 이에 본 항에서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신의 상호 교류와 遣唐 日本學問僧 그리고 渡日 외국승 등의 상황을 살펴본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중국불교가 일본불교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한다.

(1) 遣隋(唐) 日本使와 遣唐 日本學問僧

일본이 중국(隋)과 외교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600년(推古 8)에 있었던 제1차 遣隋使가 처음이었으며 그 후 隋가 멸망할 때까지의 외교관계는 4번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중국의 새 통일국가인 唐과 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630년인 舒明 2년에 있었던 제1차 견당사 파견에 이르러서부터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인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는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제2차 견당사 파견년도인 653년(白雉 4년), 다시 말해 遣唐使를 따라 입당한 <견당일본학문승> 道昭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4년 여름 5월 大唐學問僧 道嚴, 道通, 道光, 惠施, 覺勝, 辨正, 惠昭, 僧忍, 智聰, 道昭, 定惠, 安達, 道觀, 學問僧 道福, 義向

이라 한 『日本書紀』 기사와 『續日本記』의 「元興寺 선방의 경론과 道昭將來의 佛經운운」의 기사가 그것이었으나,³³⁾ 일본↔신라↔당이라는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해 <신라도>와 <신라송사>로 대변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일본이 당 불교의 영향을 받기에 아직은 시기 상조일 것이기에 따라서 道昭가 將來해 왔다는 元興寺 經論은 당보다는 오히려 신라에서 장래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의 도표 7에서 본바와 같이 도소 이후에도 지중, 의덕, 정원(모두 신라 경유하여 690년 귀국하였음)

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나라朝佛敎の研究』, 大屋徳城, 『寧樂刊經史』

33) 禪院寺 소장의 경론이 모두 道昭가 장래해 온 경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도소의 귀국(661년) 이후 天平 19년(747)까지 그 사이에 아무런 보완이나 증가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소가 장래해 온 경전들은 대부분이 眞諦三藏係의 구역 경전 곧 攝論宗係의 경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같은 <입당일본학문승>들이 있었으나 이 시기는 제3 단계의 시기 곧 신라불교의 일본 이식기였으므로 이들이 직접 唐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 시기는 신라불교를 배제하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말하자면 신라 일변도의 시기였음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면 일본불교가 唐佛敎와 깊은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나는 그것을 718년(大寶 2년, 聖德王 17년) 이후 곧 718년 귀국한 道慈와 735년 귀국한 玄昉 이 두 사람이야말로 唐佛敎를 정통으로 수용했던 첫번째의 귀당 일본학문승들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당불교를 정통으로 수용했다고 보여지는 道慈(701~718)와 玄昉(717~735) -연대는 당 체류기간을 나타냄- 은 도대체 어떠한 불교를 수용하여 그것을 일본에 전하였을까? 『東大寺具書』에 보면

道慈 元興寺에서 智藏僧正³⁴⁾으로부터 수계를 받음. 그 후 大寶 元년에 입당하여 嘉祥 大師의 손 제자인 元康法師³⁵⁾로부터 三論을 배움.

이라 하여, 도자가 吉藏의 손 제자인 원강에게 삼론을 배웠으며, 또 천평 8년인 736년에는 성덕태자를 위해 법릉사 東院에서 법화경을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⁶⁾ 따라서 도자는 고구려 慧灌 僧正(제 1傳)-智藏(제 2傳)으로 이어지는 三論宗의 제 3傳으로서 別三論宗을 일본에 전래시킨 것이 된다. 비록 경전장래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제 3傳으로서의 도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삼론종의 所依經典 정도는 장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續日本紀』의 天平 18년 條에는

玄昉은 靈龜 2년인 716년에 입당 학문승으로 입당함. 당나라 天子가 현방을 귀히 여겨 三品 벼슬을 주고 자주색 가사를 내림. 천평 7년인 735년 경론 5천여 권과 불상을 모시고 귀국함.³⁷⁾

34) 『慧灌僧正以三論宗授福亮僧正 福亮僧正授智藏僧正 智藏越海入唐重傳三論』 『三國佛法傳通緣起』

35) 元康은 貞觀年中(627~649)에 활약한 사람으로서 『中觀疏』(6권) 『百論疏』(3권) 『十二門疏』(2권)을 저술했다.

36) 『法隆寺東院緣起』

37) 『己亥 僧玄昉死 玄昉俗性阿力氏 靈龜二年入唐學問 唐天子尊昉准三品令着紫袈裟 天平七年隋大使多治比真人廣成還歸 將經論五千余卷及諸佛像來皇朝』

이라 하여, 「興福寺 僧 현방이 在唐 18년 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경론 5천여 권을 장래했다.」고 전하고 있다. 현방의 재당시기(717~735)가 당의 전성기이자 法相宗이 성행하던 시기였으므로, 현방이 법상종의 제3조인 智周(668~723) 밑에서 법상학을 배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장래했다는 5천여 권은 智昇撰 『開元釋敎錄』 所收의 1076부 5,048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³⁸⁾

(2) 渡日 外國僧 (唐, 천축 및 신라승)

도일 외국승으로서는 736년 도일한 唐僧 道璿(702~760)과 天竺僧 菩提善那(704~760) 그리고 754년 도일한 唐僧 鑑眞(688~763)과 新羅僧 審祥(? ~745)을 들 수 있다. 먼저 보리선나는 당나라에 갔던 견당사의 요청으로 일본에 건너온 후 大安寺에 살았다. 751년에는 僧正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東大寺 大佛을 點眼하기도 하였으며 『화엄경』과 呪術에 정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⁹⁾ 또 보리선나와 함께 일본에 건너온 道璿 역시 보리선나와 함께 대안사 西唐院에 주석하였다. 751년에는 律師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752년 동대사 대불의 점안의식 때는 呪願師로서 활약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⁴⁰⁾ 저서로는 『梵網經疏』(3권)가 있다.

大安寺 寫經所에서 화상에게 청하다. 이진에도 화상 소장의 경전을 청한바가 있었다.⁴¹⁾

는 『東征傳』의 기사로 보아 그가 울장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경전을 장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보다 18년 늦게 일본에 건너온 외국 승으로서 당나라의 鑑眞和尚이 있다.

제율을 일본에 처음 전하여 일본 律宗의 開祖가 된 그는 일본에 건너올 때 律部經論과 天台經論 등 총 48부의 경론을 장래해 왔다.⁴²⁾ 또 도일승으로 빠뜨려서 안될 인물이 있으니 다름 아닌 新羅僧 審祥和尙(? ~745)이다.⁴³⁾ 大安寺 審詳大德이라고 불리던 그가

38) 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敎の研究』

39) 「善呪術弟子承習至今傳之」 『南天竺波羅門僧正碑并序』

40) 櫛田良洪, 『眞言密敎成立過程の研究』 p.16

41) 「自西宅寫經所請和尚所」 「以前自西宅請來和尚所本經」

42) 石田茂作, 앞의 책 p.34

43) 최근 일본학계에서는 審詳의 出身에 대해 종래와 다른 異論이 나오기 시작했다. 곧 渡唐 新羅僧이라는 종래의 학설과 달리 심상을 신라에서 유학하고 일본에 온 異國僧(唐

언제 일본에 건너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740년(천평 12년) 金鐘寺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엄경(60권)을 설했다고 전해지는 『華嚴別供緣起』의 기록으로 보아⁴⁴⁾ 그는 적어도 740년 이전에는 일본에 건너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상과 함께 대안사에 같이 살았던 菩提仙那나 도선을 차치하고 특별히 심상만을 일컬어 <大安寺 審祥大德>이라 한 점으로 볼 때 심상은 이들의 대안사 주석 연도인 736년보다 더 일찍 일본에 건너와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 아무튼 智識寺(구 사찰명 : 金鐘寺)에서의 심상화상의 일본 최초의 화엄경 강설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왜냐하면 심상대덕이 화엄경을 설한 智識寺에는 聖武天皇이 참석했는데 그 聖武天皇은 본존불인 노사나불께 「朕欲奉造」란 발원을 세웠고 그로부터 3년 후인 743년에는 드디어 東大寺 大佛의 建立 佛事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심상대덕이 화엄경을 설했던 智識寺란 어떤 사찰이었으며 또 당시의 고승으로서 심상대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慈訓과 良弁은 어떤 스님이었는지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지식사는 津氏와 船氏 그리고 葛井氏 등 백제계 씨족에 의해 창건된 願刹이었으며,⁴⁵⁾ 또 심상대덕의 화엄경 강설 때 複師를 맡았으며 제2회 講說 때 講師가 되어 직접 화엄경을 설한바 있던 慈訓⁴⁶⁾(?~777)과 東大寺 창건의 4인방으로서 東大寺의 初代 住持로 임명되었던 良弁(689~773), 곧 심상대덕의 화엄학 제자로서 동대사 창건에 큰 몫을 했던 두 사람은 백제로부터의 渡日僧이었던 것이다.⁴⁷⁾

僧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福山敏男, 「新羅僧ではなく新羅で留學した異國僧(唐僧)ではないか」, 『日本建築史研究』. 堀池春峰, 「華嚴經講說よりみた 良弁と審祥」, 『南都佛教』 31호. 또 심상화상의 歿年에 대해서는 『정창원문서』 천평 16년(744)條인 「律論疏集傳等本收納并返送帳」의 「五月二十七日臘摩訶衍起信論別記一券(略)元曉師撰者 以十六年八月四日還送 受使御弟子善戒師使人成」, 『日本古文書』 pp.8~194의 기사 내용으로 보아, 심상 화상이 744년 8월까지의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凝然이 「天平十四年壬午庵焉卒矣」이라 하여 심상화상의 몰년을 742년이라 한 것은 凝然의 착각이라 해야 할 것이다.

44) 「大安寺審祥師乃是嚴智也 내以去天平十二年屈請其師 并集京城名僧方始就金鐘道場講演此一乘」, 『東大寺西錄』 卷5, 諸宗章 제6, 華嚴宗所收 『華嚴別供緣起』

45) 井上薫, 「渡來人と遺族の氏寺」, 『アジア 佛教史』 日本編 1.)

46) 『東大寺華嚴別供緣起』에 의하면, 天平 12~14년 간의 華嚴經講說 山林時에 심상화상은 講師로 慈訓, 鏡忍, 圓証은 複師로 근무했으며, 天平 15년의 講說때는 慈訓이 講師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7) 慈訓은 河内國人으로 속성은 船氏이고, 良弁은 近江國 내지는 相模國人으로 두 사람 모

따라서 당시(740~753)의 일본불교계에는 한반도 출신의 僧 특히 百濟係 도일승이 크게 활약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심상대덕의 도일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식사와 동대사 그리고 일본 화엄종 개종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기사들은 東大寺 大佛 鑄造나 日本 華嚴宗 개종이 바로 渡日 韓半島人에 의해서 창출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東大寺의 大佛인 비로자나부처님 鑄造時 鑄造 技能者였던 國中連公磨(國中磨) 역시 百濟人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審祥和尙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正倉院文書』를 종합해 보면 심상화상은 상당히 많은 藏書를 所藏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대사의 寫經所가 심상화상으로부터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심상화상 소장의 경론들을 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170부 645권에 달하는 <大安寺 審祥師 經錄>⁴⁸⁾ (『정창원문서』의 기록에 나오는 사경 목록 중 심상화상으로부터 빌려 온 경론만을 堀池春峰氏가 정리해 놓은 목록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 목록은 심상화상이 당연히 소장하고 있었을 <80권 화엄경>이 빠져 있어 완전한 심상화상 목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심상화상이 일본에 건너올 때 장래해 온 경전은 이 목록보다 더 많았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도표 8> 大安寺 審祥和尙 所藏經錄

번호	심상화상 소장(經軌)	권수	역, 저자명	수재(收載) 년월
1	華嚴經	60	佛駄跋陀羅	勝寶 6년 2월
2	華嚴經論	65	靈弁	曇雲 2년 12월
3	華嚴經疏	20	法藏	天平 16년 1월
4	상동	10	元曉	景雲 2년 11월
5	상동	12	慧遠	勝寶 6년 11월
6	華嚴經孔目	6	智儼	景雲 2년 11월
7	一乘法界圖	1	義湘	상동 11월
8	華嚴入法界抄	1	智儼	상동 12월
9	華嚴旨歸	1	法藏	상동 12월
10	華嚴經科簡	1	宗一	상동 3년 7월

두 백제의 후예들이었다. 井上光貞, 「王仁後裔氏族と佛教」 『史學雜誌』 54권 9호 참조.
48) 石田茂作氏의 앞의 논문인 「一切經疏目錄」(NO, 2893)에도 보임.

11	華嚴經修慈分	1	提雲般若 譯	天平 12년 7월
12	五門實相論	5		勝寶 6년 8월
13	十地論疏	4	慧遠	景雲 2년 2월
14	十地論義記	2	慧遠	상동
15	法界無差別論疏	1	法藏	상동
16	十二門論疏	1	吉藏	상동
17	金剛三昧論疏	3	元曉	상동
18	金剛三昧論記	3		상동 12월
19	觀所緣緣論疏	1	圓測	상동 2년
20	觀所緣緣論疏	1	神郭	상동
21	發菩提心義 遊心法界記	1	法藏	상동
22	勝鬘經義記	3		상동 11월
23	勝鬘經義疏	1	慧遠	상동
24	勝鬘經疏	2	元曉	상동
25	維摩經	3	鳩摩羅什	景雲 원년 10월
26	維摩經疏	4	髮多羅	상동 2년 11월
27	維摩經疏	4	慧遠	상동
28	密嚴經疏	4	法藏	勝寶 3년 6월/景雲 2년 11월
29	大乘起信論	2	實叉難陀	景雲 2년 12월
30	起信論疏	2	慧遠	勝寶 7년 9월/景雲 2년 11월
31	起信論疏(別記)	1	元曉	天平 16년 5월
32	起信論疏	2	法藏	勝寶 5년 1월
33	起信論史記	1	元曉	상동
34	起信論疏	1	大行	상동
35	一道義	1	元曉	景雲 2년 11월
36	二障章	1	元曉	상동
37	寶性論科文	1	元曉	勝寶 5년 1월/景雲 2년 12월
38	寶性論疏	2	元曉	景雲 2년 2월
39	和諍論	2	元曉	상동 12월
40	楞伽經玄義	1	法藏	景雲 2년 11월

41	楞伽經宗要	1	元曉	상동
42	本業瓔珞經疏	2	元曉	상동 12월
43	楞伽經疏	7	元曉	상동 11월
44	楞伽經疏	3		상동
45	華嚴起信觀行法門	1	審祥	상동
46	瑜伽論略纂	3	義斌	상동 2월
47	瑜伽決釋分抄	13	文備	상동
48	瑜伽決釋分抄	6		상동
49	瑜伽抄	18		상동
50	瑜伽論略抄	4	本立	상동
51	顯揚論記	1		상동
52	能斷金剛般若合論記	1		상동
53	能斷金剛般若經疏	2	靖邁	상동 11월
54	金剛般若論	3	元曉	상동
55	攝大乘論疏	8	玄範	상동
56	攝大乘論疏	12	神郭	상동
57	攝大乘論抄記	4	玄範	상동 3년 6월
58	文殊舍利菩薩問菩薩論	2	菩提流支	상동
59	龍崗菩薩和香法	1	菩提流支	상동
60	中論分別論疏	4	元曉	勝寶 6년 11월
61	弁中邊論記	6	窺基	景雲 2년 2월
62	大乘觀行門(華嚴大乘觀行門)	2	元曉	景雲 2년 2월
63	大乘觀行門	1		상동
64	雜集論記	1		상동
65	雜集論疏	10	玄範	상동 3년 6월
66	雜集論疏	5	元曉	상동 2년 2월
67	百法論疏	1		상동
68	彌勒經疏	3	憬興	상동 11월
69	彌勒經疏	1	窺基	상동

70	大乘苑林章	1	窺基	상동
71	唯識論概要	2	窺基	상동
72	唯識要集	13	道證	상동
73	唯識論疏	9	圓測	상동
74	唯識概要 私記	2	玄一	勝寶 5년 1월
75	般舟三昧經略記	1	元曉	상동 8월
76	梁攝論疏抄	4	元曉	상동 3월
77	世親論疏	4	元曉	상동 6년 11월
78	不增不減經疏	1	元曉	景雲 2년 11월
79	佛地論述本記	4		상동
80	三寶要章	1		상동
81	六十二見義	1	圓測	상동
82	六種現觀義	1		상동
83	俱舍論	30	玄奘	상동 12월
84	俱舍論疏	15	普光	상동 11월
85	大智度論釋	3		상동 12월
86	三論玄義	1	元曉	상동 2월
87	順正理論私記	1		상동 6월
88	廣百論撮要	1	元曉	상동 11월
89	大乘廣百論釋論	10		상동 12월
90	金光明經疏	7	眞諦	상동
91	金光明最勝王經	10	義淨	상동 6월
92	涅槃經疏	10	曇慧	상동 11월
93	涅槃經疏	5	義寂	상동
94	涅槃經音義同異	2		상동
95	涅槃無名論表	1	僧肇	상동
96	涅槃經綱目	2	義寂	상동 11월
97	涅槃經疏抄	2	林法師	상동

98	涅槃經宗要	1	元曉	상동
99	法華經	8	鳩摩羅什	寶字 7년 4월
100	法華經疏	10	窺基	景雲 2년 11월
101	法華經要略	1	元曉	상동
102	法華經字釋記	1	曇捷	상동
103	法華經科簡	1	義寂	상동
104	法華經玄義	1		상동
105	法華經玄談	1	吉藏	상동
106	法華經義記	1		상동
107	法華略述	1	元曉	勝寶 5년 1월
108	法華論述記	1	義寂	景雲 2년 2월
109	法華論疏	2		상동 11월
110	法華論述記	2		상동
111	法華論述記	2		상동
112	無量壽經優婆提願生偈	1	菩提流支	상동 3년 6월
113	兩券無量壽經疏	1	玄一	勝寶 5년 8월
114	兩券無量壽經疏	3	義寂	景雲 2년 11월
115	兩券無量壽經宗旨	1	元曉	상동 12월
116	往生論記	1		상동
117	稱讚淨土佛攝受經疏	1	靖邁	상동
118	佛說索抄經	1	支謙	상동
119	安樂集	2	道暲	상동 11월
120	大般若經綱要	1	義寂	상동
121	大般若經科文	1		상동
122	大般若經宗要	1	元曉	상동
123	般若心經疏	1	圓測	상동
124	遺教經疏	2		상동 12월
125	遺教經論疏	2		상동 6월

126	受菩薩戒法	1		상동 12월
127	菩薩本持犯要	1	元曉	상동
128	婆羅提木叉戒經疏	1		상동 11월
129	仁王經讚述	2	慧淨	상동
130	大方等如來藏經私記	1	圓光	상동
131	理趣經疏	1	義寂	상동
132	三具足經優婆提舍	1	毘目智仙 等 譯	상동 3년 6월
133	葉波耨達磨菩提因緣	1		상동
134	因明立證理論疏	3	窺基	상동 2년 2월
135	因明正理門論記	2	圓測	상동
136	因明正理門論記	1		상동
137	因明正理門論抄	1	玄範	상동
138	因明正理門論抄	1	文備	상동
139	小因明文備師疏	1	文備	勝寶 5년 1월
140	文軌師抄	1	文軌	상동
141	地持論	8	曇無讖	景雲 2년 12월
142	地持論義記	5	慧遠	勝寶 6년 11월
143	隨願顯宗論	1		景雲 2년 12월
144	隨願經論記	1		상동
145	金敲經疏	8	元曉	상동
146	思益梵天所問經疏	2		상동
147	六門教授習定論	1	義淨	상동
148	內典序(大唐內典錄序)	1	道宣	상동
149	大乘三論義九門	1		상동 3년 6월
150	三藏義(大乘三藏義)	1		상동
151	明大乘理	1		상동
152	入大乘理	2	道秦	勝寶 6년 11월
153	馬鳴生論疏	1	義寂	상동 8월

154	佛性義	1		景雲 2년 2월
155	佛性論疏	5	元曉	상동
156	觀行問答	1		상동
157	問答	2	懷感	景雲 2년 11월/勝寶 5년 1월
158	初章觀文	1		景雲 2년 11월
159	懲行疏難	1		상동
160	判比量論	1	元曉	상동
161	諸經教述	1		상동
162	諸經論序并翻譯時節	1		상동 12월
163	無垢稱經	6	玄奘	寶字 7년 10월
164	取因論	1	義淨	天平 12년 7월
165	摩訶衍經	1		상동16년5월
166	眞言要訣	6		寶字 8년 3월
167	高僧傳略集	2		勝寶 5년 3월
168	高僧傳要行抄	2	求那跋摩	景雲 2년 12월
169	造房記	1		상동
170	審祥師經錄	1		勝寶 5년 9월/景雲 2년 10월
171	新羅學生大安寺審祥大德記	1		不詳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170부 645권에 이르는 審祥和尙 所藏의 經論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도표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먼저 170부 645권의 심상 화상 소장 經論 中 新羅僧에 의해 저작된 章疏는 53부 130권에 달하며, 이들 중 32부 78권이 元曉스님에 의해 저작된 章疏들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중국승 惠遠(6부 28권)과 法藏(7부 28권)의 저작을 합친 13부 56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원효스님의 저작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심상화상이 新羅 僧이었다는 점⁴⁹⁾, 그리고 당시 원효스님이 차지하는 높은 位相 등이 가장 큰 이

49) 註 41에서 ‘審祥和尙은 新羅僧이 아니고 異國僧(唐僧)’이라는 최근의 일본 불교학계의 움직임에 대해 거론한바 있으나, 본고에서 취했던 方法으로 <대안사심상사경록>을 정

유였지 않을까 생각된다. 곧 신라승인 심상화상이 고국 신라를 떠나오면서 당시 가장 학덕이 높았던 원호스님을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가능한 한 원호의 저서를 수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의 논고 준비를 위한 시금석으로 도표 8의 심상화상 소장경론 중 <新羅僧 저작>(53부 130권)을 石田茂作氏가 정리해놓은 <奈良朝一切經疏目錄> 가운데서 발췌한 <新羅僧 저작>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 비교야말로 심상화상의 소장 목록이 갖는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도표 9> 審祥和尙 所藏經論과 奈良朝 寫經目錄의 對比 -新羅僧 著作을 중심으로-

審祥和尙 所藏經論						奈良朝 寫經目錄						비고
번호	NO	著作者	經名	卷數	收載年代	大日本古文書券-項	NO	著作者	經名	卷數	收載年代	
1	4	元曉	華嚴經疏	10	景雲 2년 (768)	17~135	1828	元曉	華嚴經疏	8	天平 15년 (743)	8~169
2	17	동	金剛三昧論疏	3	景雲 2년 (768)	17~107	2154	동	金剛三昧論疏	3	寶字 7년 (763)	16~169
3	24	동	勝鬘經疏	2	景雲 2년 (768)	17~135	1908	동	勝鬘經疏	2	勝寶 3년 (751)	12~9
4	31	동	起信論疏 (別記)	1	天平 16년 (744)	8~189	2438	동	起信論(別記)	1	天平 15년 (743)	8~169
5	33	동	起信論私記	1	勝寶 5년 (753)	12~387	2439	동	起信論記	1	寶字 7년 (763)	16~405
6	35	동	一道義	1	景雲 2년 (768)	17~137	2441	동	一道義	1	勝寶 5년 (753)	12~362
7	36	동	二障義	1	景雲 2년 (768)	17~137	2446	동	二障義	1	勝寶 3년 (751)	11~566
8	37	동	寶性論科文	1	勝寶 5년 (753)	12~387	2498	동	究竟-乘寶性論科文	1	景雲 2년 (768)	17~133
9	38	동	寶性論疏	2	景雲 2년 (768)	17~107	2499	동	寶性論疏	1	勝寶 4년 (752)	12~361
10	39	동	十門和諍論	2	景雲 2년 (768)	17~132	2700	동	十門和諍論	2	勝寶 3년 (751)	11~566

밀분석해보면 이러한 說들이 아무런 근거없는 浪說임을 알 수 있다.

11	41	동	楞伽經宗要	1	景雲 2년 (768)	17~136	1941	동	楞伽經宗要	1	天平 20년 (748)	3~85	
12	42	동	本業瓔珞經疏	2	景雲 2년 (768)	17~133	2246	동	瓔珞經疏	2	天平 20년 (748)	3~86	
13	43	동	楞伽經疏	7	景雲 2년 (768)	17~136	1943	동	楞伽經疏	13	勝寶 4년 (752)	12~380	
14	54	동	金剛般若論	3	景雲 2년 (768)	17~140	2054	동	金剛般若經疏	3		11~535	
15	60	동	中邊分別論疏	4	勝寶 6년 (754)	3~654	2344	동	中邊分別論疏	4	勝寶 3년 (751)	12~55	
16	62	동	大乘(華嚴) 觀行門	2	景雲 2년 (768)	17~107	2639	동	大乘觀行門	3	勝寶 4년 (752)	12~382	
17	66	동	雜集論疏	5	景雲 2년 (768)	17~107	2335	동	雜集論疏	5	景雲 2년 (768)	17~107	審詳本 사경 (0)
18	75	동	般舟三昧經略 記	1	勝寶 5년 (753)	12~22	1925	동	般舟三昧經略 記	2	天平 20년 (748)	3~86	
19	76	동	梁攝論疏抄	4	勝寶 5년 (753)	3~108	2350	동	梁攝論疏抄	4	勝寶 5년 (753)	3~618	審詳本 사경 (0)
20	77	동	世親論疏	4	勝寶 6년 (754)	3~654	2349	동	世親攝論疏	4	勝寶 6년 (754)	3~654	審詳本 사경 (0)
21	78	동	不增不減經疏	1	景雲 2년 (768)	17~136	2018	동	不增不減經疏	1	天平 20년 (748)	3~86	
22	86	동	三論玄義	1	景雲 2년 (768)	17~108	2486	동	三論宗要	1	勝寶 2년 (750)	11~304	
23	88	동	廣百論撮要	1	景雲 2년 (768)	17~137	2478	동	廣百論撮要	1	天平 20년 (748)	3~88	
24	98	동	涅槃經宗要	1	景雲 2년 (768)	17~136	2165	동	涅槃經宗要	1	勝寶 4년 (752)	12~379	
25	101	동	法華經略記	1	景雲 2년 (768)	17~136	2125	동	法華要略	1	天平 20년 (748)	3~85	
26	107	동	法華略述	1	勝寶 5년 (753)	12~387	2128	동	法華略述	1	勝寶 4년 (752)	12~379	
27	115	동	兩券無量壽經 宗旨	1	景雲 2년 (768)	17~133	1889	동	兩券無量壽經 宗旨	1	勝寶 4년 (752)	12~380	

28	122	동	大般若經宗要	1	景雲 2년 (768)	17~136	2023	동	大慧度經宗要	1	天平 20년 (748)	3~86	
29	127	동	菩薩本持紀要	1	景雲 2년 (768)	17~133	2243	동	菩薩本持紀 要記	1	天平 20년 (748)	3~87	
30	145	동	金敲經疏	8	景雲 2년 (768)	17~132	1989	동	金敲經疏	8	勝寶 4년 (752)	12~380	
31	155	동	佛性論疏	5	景雲 2년 (768)	17~107	2490	동	佛性論疏	5	景雲 2년 (768)	17~107	審詳本 사경 (0)
32	160	동	判比量論	1	景雲 2년 (768)	17~137	2651	동	判比量論	1	天平 12년 (740)	7~488	
1	7	義湘	一乘法界圖	1	景雲 2년 (768)	17~136	1829	義湘	華嚴一乘法界 圖	1	天平 19년 (747)	10~278	
1	19	圓測	觀行緣緣論疏	1	景雲 2년 (768)	17~108	2431	圓測	觀所緣緣論疏	2	勝寶 3년 (751)	12~55	
2	73	圓測	唯識論疏	9	景雲 2년 (768)	17~137	2373	圓測	成唯識論疏	10	寶字 7년 (763)	16~404	
3	81	圓測	六十二見見	1	景雲 2년 (768)	17~137	2748	圓測	六十二見	2	天平 20년 (748)	3~87	
4	123	圓測	般若心經疏	1	景雲 2년 (768)	17~136	2072	圓測	般若心經疏	1	寶字 7년 (763)	16~401	
5	135	圓測	因明正理門論 記	2	景雲 2년 (768)	17~106	2401	圓測	因明正理門論 疏	2	寶字 7년 (763)	16~404	
6	67	圓測	百法論疏	1	景雲 2년 (768)	17~109	2428	圓測	百法論疏	1	勝寶 3년 (751)	12~55	
1	34	大行	起信論疏	1	勝寶 5년 (753)	12~387	2458	大行	起信論疏	1	勝寶 4년 (752)	12~387	
1	68	憬興	彌勒經疏	3	景雲 2년 (768)	17~136	2215	憬興	彌勒經疏	3	天平 12년 (740)	7~490	
1	72	道証	唯識要集	13	景雲 2년 (768)	17~137	2385	道証	唯識集	14	天平 17년 (745)	8~390	
1	74	玄一	唯識樞要私記	2	勝寶 5년 (753)	12~387	2382	玄一	唯識樞要私記	2	勝寶 4년 (752)	12~33	
2	113	玄一	兩券無量壽經 疏	1	勝寶 5년 (753)	13~35	1896	玄一	兩券無量壽經 疏	2	勝寶 5년 (753)	13~35	審詳本 사경 (0)
1	93	義寂	涅槃經疏	5	景雲 2년 (768)	17~136	2174	義寂	涅槃經疏	16	勝寶 4년 (752)	12~309	NO 2172 ?

2	96	義寂	涅槃經綱目	2	景雲 2년 (768)	17~136	2170	義寂	涅槃經綱目	2	天平 20년 (748)	3~84
3	103	義寂	法華經科簡	1	景雲 2년 (768)	17~136	2133	義寂	法華科簡	1	天平 20년 (748)	3~85
4	108	義寂	法華論述記	1	景雲 2년 (768)	17~108	2134	義寂	法華科簡	1	勝寶 4년 (752)	3~380
5	114	義寂	兩券無量壽經疏	3	景雲 2년 (768)	17~136	1892	義寂	兩券無量壽經疏	3	勝寶 4년 (752)	12~380
6	120	義寂	大般若經綱要	1	景雲 2년 (768)	17~136	2027	義寂	大般若經綱要	1	天平 20년 (748)	3~86
7	131	義寂	理趣經疏	1	景雲 2년 (768)	17~136	2040	義寂	理趣經幽讚	1	寶字 7년 (763)	16~401
8	153	義寂	馬鳴生論疏	1	勝寶 6년 (754)	3~651	2552	義寂	馬鳴生論疏	1	天平 20년 (748)	3~86
1	130	圓光	大方等如來藏經私記	1	景雲 2년 (768)	17~136	2016	圓光	如來藏經私記	3	天平 20년 (748)	3~85
1	45	審祥	華嚴起信觀行法門	1								

상기 도표 9를 통하여 新羅僧의 저작들을 대비해 보았다. 이제 그 결과로 드러난 것들을 정리해 보면, 石田씨의 奈良朝 寫經目錄 중 經典번호 1896, 2335, 2349, 2350, 2490에 해당하는 경론들은⁵⁰⁾ 그 초사된 연월이 審祥和尙 所藏經論과 일치하며, 또 심상화상 소장경론에 수록된 53부 130권의 신라승 저작은 元曉(32부 78권)/義湘(1부 1권)/大行(1부 1권)/義寂(8부 15권)/玄一(2부 3권)/憬興(1부 3권)/圓測(6부 15권)/道証(1부 13권)/圓光(1부 1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을 石田씨의 사경록⁵¹⁾과 비교(앞 부분은 심상화상의 사경록이며, 뒤 부분은 石田氏의 사경록을 나타냄)하여 보니, 원효(32 : 41)/의상(1 : 1)/대행(1 : 2)/의적(8 : 9)/현일(2 : 4)/경홍(1 : 12)/원칙(6 : 10)/도증(1 : 3)/원광(1 : 1)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심상화상이 奈良錄에 수록되어 있는 신라승의 저작 부수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론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정창원목록』의 사경 기록이 말해주듯 奈良朝의 사경불사에 신라승 심상화상의 장서가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컸음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이러한

50) 이들 경전들은 앞의 도표의 備考란에 0표를 붙여 區別지어 놓았다.

51) 石田茂作, 앞의 논문의 도표 9. <初寫註撰疏者別表> 참조.

단언을 내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도표 9에서 보듯 일부의 章疏에서 나라조의 初寫經 年月日이 심상화상 소장경론의 기재 연월일(빌려 간 연월일)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겠으나,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대부분의 신라승의 章疏는 심상화상의 渡日 이전에 이미 일본에 장래되어 있었기에 (<견신라 일본학문승>들이 무엇을 일본에 장래해 갔는지 또 어떤 스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큰 과제일 것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사경하였다가 심상화상의 도일 이후 부족한 점과 의심나는 점들을 대조, 보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은 사경하기 위하여 심상화상으로부터 빌려 갔을 것이라고.... 아무튼 심상화상의 생존시 初寫된 章疏가 원효(10부) / 대행(1부) / 의적(1부) / 현일(1부) / 경홍(5부) / 원칙(4부) / 도증(2부) / 태현(1부) / 행달(1부) / 명정(1부) 등 총 27부나 되는 것만 보아도, 奈良朝 사경불사는 물론 초기 일본불교의 경전전래사 연구에서 심상화상이 차지하는 위상은 도자와 현방 이상으로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Ⅲ. 奈良朝 日本史書에 보이는 밀교경전

1. 『日本書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도표 10> 『日本書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종류	경전명	초 기재년	기재 회수	衆經目錄(602년찬)상의 경전명	권수	역자	비고
1	大雲經	皇極 원년(642)	1	大雲經	?	閻那耶舍	
2	安宅經	白雉 2년(651)	1	安宅要女神呪經	2	那連提耶舍	
3	土側經	?	1	安宅墓土側經	?		
4	金光明經	天武 5년(676)	6	合部金光明經	8	寶貴	中國纂述疑偽經으로 676, 680, 686, 692, 694, 696년에 기재됨
5	仁王經	齊明 6년(660)	2(3)	仁王般若波羅蜜經	2	鳩摩羅什	600, 676, 693년에 기재됨
6	藥師經	朱鳥 2년(686)	1	藥師如來本願經		達摩笈多	

도표 10을 통해서 보듯이 『일본서기』에는 6종류의 밀교경전명 밖에 보이고 있지 않으나,⁵²⁾ 「一切經을 읽게 했다.」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4군데나 보이고 있어 다소 흥미를 끌게 한다.

1. 白雉 2년(651) 味經宮에 僧尼 2,100여 명을 청해 一切經을 읽게 했다.⁵³⁾
2. 天武 2년(673) 書生들을 川原寺에 모아 처음으로 一切經을 사경케 했다.
3. 天武 4년(675) 사신을 四方에 보내 一切經을 읽게 했다.
4. 天武 6년(677) 飛鳥寺에서 크게 祭를 지내면서 一切經을 읽었다.

또 『日本書紀』 외에 古寫經의 기록<持統朝(696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밀교경전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⁵⁴⁾

종류	경전명	권수	역자(연대)	기재년
1	金剛場陀羅尼經	1	闇那堀多(585년)	丙戌(686?)
2	金光明經	8	寶貴(597년)	持統 8년(694년)

상기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持統朝 (696년) 이전에 일본에 전래되어진 밀교경전이 『金光明經』과 『仁王經』 등 7부이며, 또 그들 모두가 玄奘 이전의 舊譯經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일본서기』에 보여지는 「一切經」 운운 기사의 일체경이란 것 또한 모두가 仁壽 2년(602)찬의 『衆經目錄』에 수록된 현장 이전의 구역 경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 신역경전이 전래된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일본에 현장 이후의 新譯經典이 전래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持統朝 이후 곧 『續日本紀』(696년 이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⁵⁵⁾ 물론 禪院寺(元興寺 禪院) 所藏의 90

52) 이 밖에도 『일본서기』에는 승만경(推古 14년 條), 법화경(推古 14년 條), 무량수경(舒明 12년 條), 우란분경(齊明 5년 條), 금강만야경(天武 14년 條, 관세음경(朱鳥 원년 條) 등의 顯敎經典이 보인다.

53) 石田茂作 씨는 승려의 수를 가리키는 2,100이라는 숫자가 『衆經目錄』 收載의 2,109부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승려 한 사람당 經 1부씩 읽게 했다고 추측함과 동시, 따라서 <一切經>이란 다음 아닌 隋의 仁壽 2년(1602년)에 撰한 『衆經目錄』 收載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4) 田中塊堂, 『日本寫經綜覽』 「現存古寫經年表」 참조.

여 經論疏(661년 道昭가 將來한 경론 중 一部라고 전해지고 있음) 가운데는 玄奘 門下生에 의한 저술도 있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⁵⁶⁾ 그러나 道昭가 귀국한 661년부터 상기 禪院寺 「寫經所解」의 기사가 있는 747년까지의 80여 년 사이에 禪院寺 所藏의 경론이 보충이나 증가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持統朝까지 일본에 전래된 경전은 顯密經典 모두 현장 이전의 구역경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무튼 이들 구역경전들 가운데 가장 중시되고 많이 읽혀진 경전은 국가의 鎮護를 설하고 있는 『仁王經』과 『金光明經』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호국 밀교경전에 의한 護國法會(金光明道場이나 仁王道場)도 성행했으리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2. 『續日本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日本書紀』 이후의 역사, 곧 持統朝 이후의 일본 역사를 담고 있는 『續日本紀』에는 많은 불교경전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나, 이제 이들 중 밀교경전만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 『續日本紀』에 보이는 밀교경전

번호	경전명	初記載年	기재 회수	衆經目錄(602년찬)상의 經典名	권수	역자	비고
1	金光明經	大寶 2년(702)	7	合部金光明經	8	寶貴(구역)	
2	大般若經	大寶 3년(703)	20	大般若波羅蜜多經	600	玄奘(신역)	「四大寺讀大般若經度一百人」
3	藥師經	養老 4년(720)	3	藥師如來本願經	1	達摩笈多(구역)	
4	大集經	養老 6년(722)	2	大方等大集經	60	曇無讖등(구역)	
5	最勝王經	神龜 2년(725)	15	金光明最勝王經	10	義淨(신역)	

55) 石田茂作, 앞의 논문 p.14.

56) 元興寺 禪院 所藏의 經卷은 모두가 初唐 즉 玄奘 시대까지 번역된 경전들이며, 또 그 가운데에는 玄奘 門下生의 저술들도 상당수 있다. 이제 참고 삼아 이들 經論들을 學派別로 분류해 보면 法性宗 관계(25부), 三論宗 관계(5부), 律宗 관계(11부), 禪宗 관계(5부) 등이다. (『大日本古文書』 pp.2~707) 참조.

6	仁王經	天平 원년(729)	7	仁王般若波羅蜜經	2	鳩摩羅什(구역)
7	五穀成熟經	天平 11년(739)	1	미상	?	?
8	藥師經	天平勝寶 6년(754)	2	藥師留璃光如來本願功德經	1	玄奘(신역)

또 古寫經의 기록 중 文武朝(698년)~天平 10년(738년)의 40년 동안 서사된 밀교경전을 조사 발췌해 보니 다음의 3개 경전이 그에 해당된다.⁵⁷⁾

<도표 12>

종류	經典名	권수	역자(연대)	記載年	비고
1	大般若波羅蜜多經	600	玄奘(663)	和銅 5년(712)	
2	大灌頂神呪經	12	帛尸梨蜜多羅(319, 322)	天平 3년(731)	
3	灌頂隋願往生記	1	玄一(신라승)	天平 9년(737)	新羅僧, 상기 2년의 『大灌頂神呪經』 권11에 해당되는 『隋願往生經』의 주석서임. 天平 10년(748)과 勝寶 4년(752)에도 寫經되었음, 石田茂作, 「一切經疏目錄」, NO. 2225, 2226 참조

상기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續日本紀』 및 天平 10년(738)까지의 古寫經에 보이는 밀교경전은 구역 경전 7종과 신역경전 4종 총 11종이며, 이들 경전 중 『관정수원왕생기』(『대관정신주경』 권11의 주석서)는 신라승 玄一(?~ ?)의 저작임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가 구역과 신역이 교체되는 시기이며, 또 이때까지도 『인왕경』, 『대반야경』, 『금광명경』 같은 護國 密教經典들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신라승들의 章疏가 활발히 전해지고 있던 시기였음도 아울러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역경전 및 신라승의 章疏들은 도대체 언제 또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디에서 일본으로 장래된 것일까? 나는 이들 경전들이 天智朝에서 文武朝(662~706) 사이에 遣新羅(日本)學問僧들에 의해 신라에서 일본으로 장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시기(天智朝~文武朝) 일본의 對外文化 受容의 窓口은 唐이 아니라 신라였기 때문이며, (곧 이 시기는

57) 註 52번의 田中塊堂, 앞의 논문 참조.

일본과 당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반면 반대로 신라와의 관계는 밀접해진 그런 시기였다) 둘째 당시의 신라불교는 元曉, 義湘, 圓測 등의 유명 학문승들이 활약하고 있던 시기로서 이 시기의 신라 불교문화는 당의 불교문화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殊勝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다음에 보여지는 도표 13의 <新譯經典의 주석서 일람>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장의 신역경전에 대한 연구는 唐僧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新羅僧에 의해 꽃이 피워졌으며, 따라서 도표 7의 <견당 및 견신라 일본학문승 일람>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많은 <遺新羅日本學問僧>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생긴 자연적 현상으로서, 그들 많은 일본 승려들이 수승한 신라 불교문화를 배우기 위해 신라로 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표 13> 新譯經典의 註釋書 일람

종류	註釋書名	권수	撰者(國別)
大般若經	1, 대반야경 理趣分述讚	3	窺基(당)
	2, 상동(16분서)	1	玄則(당)
	3, 상동(音義)	3	玄應(당)
	4, 大慧度經宗要	1	元曉(신라)
	5, 般若理趣分經疏	1	道征(신라)
	6, 大般若經 籍目	2	道征(신라)
	7, 상동(綱要)	1	憬興(신라)
	8, 상동(略記)	2	遁倫(신라)
	9, 상동(疏)	1	遁倫(신라)
	10, 般若理趣分經註	2	太賢(신라)
	11, 상동(幽贊)	1	義寂(신라)
	12, 대반야경剛要	1	義寂(신라)
金光明經	1, 금광명경疏	8	元曉(신라)
	2, 동 略記	1	憬興(신라)
	3, 동 述讚	7	憬興(신라)
	4, 동 略記	1	遁倫(신라)
	5, 동 述記	4	太賢(신라)
金光明最勝王經	1, 금광명최승왕경	6	慧沼(당)
	2, 동 略讚	5	憬興(신라)
	3, 최승왕경疏	10	憬興(신라)

	4, 금광명최승왕경科簡	1	太賢(신라)
	5, 동 疏	8	勝莊(신라)
仁王般若經	1, 인왕반야경疏	1	慧沼(당)
	2, 동 疏	3	崇峻(당)
	3, 동 疏	2	玄範(당)(신라?)
	4, 동 疏	6	圓測(신라)
	5, 인왕반야경述記	1	太賢(신라)

곧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반야경』은 총 12부의 주석서 가운데 9부를, 『금광명경』은 총 5부의 주석서 전부, 『금광명최승왕경』은 총 5부 가운데 4부를, 『인왕반야경』은 총 5부 가운데 2부(3부)⁵⁸⁾를 新羅僧이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라 註釋僧들이 활약한 시기도 다름 아닌 일본과 신라가 가장 밀접하게 교류를 유지하고 있던 天智朝~元正朝(662~723), 다시 말해 <遣新羅日本學問僧>들이 신라를 드나들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 있어 新譯經典의 受容은 입당한 일본 학문승들에 의해 唐에서 직접 수용되어 온 것이 아니라 <견신라 일본학문승>들에 의해 新羅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자연적으로 新羅僧의 영향을 받은 곧 法會形式을 비롯한 佛敎文化도 모두 新羅의 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크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3.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밀교경전

일본의 奈良朝에 장래되어 있던 경전의 전모를 알려 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남아 있으니 다름 아닌 『正倉院文書』이다. 곧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정창원문서』는 奈良朝에 전래되어 있던 많은 불교경전(경 및 주석서)들의 經名은 물론 部數와 심지어 初寫되었던 年代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 당시 불교의 모습을 아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극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제 다음 <도표 14>에서는 그동안 『정창원문서』에 쏟아 부은 학자들의 업적을 참조해 가면서⁵⁹⁾ 그 속에서 우리들의 중심 주제인 密敎經典만

58) 石田茂作氏は 玄範을 唐僧으로 보고 있으나 (위의 「一切經疏目錄」 NO. 2066,2067), 関詠珪氏は 新羅僧으로 보고 있다. (『新羅章疏錄長編』, 백성욱 박사 송수 기념 『불교학논문집』)

을 발췌하여 그들 밀교경전들을 譯經年代 순서로 譯者別로 배열하면서 그 경전들의 初寫年代를 밝혀 보일 것이며, 그리고 <도표 15>에서는 이들 밀교경전들을 寫經年代別로 분류해 보고, 또 <도표 16>에서는 『정창원문서』에 보이는 密敎經軌(註釋書)들만을 발췌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합적이고도 분석적 작업들은 당시 전래된 경전의 전모는 물론 당시의 불교의 모습과 형태까지도 알게 해주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도표 14>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밀교경전

번호	時代	譯者(種類)	經典名(권수)	譯經年代	初寫年代
1	後漢	失譯(1)	安宅神呪經(1)	220	天平 5년(733)
2	吳	支謙(4)	無量門微密持經(1)	223~253	天平 8년(736)
3			摩登伽經	230	天平 5년(733)
4			持句神呪經	222~253	天平 19년(747)
5			華聚陀羅尼呪經	253	天平 9년(737)
6	西晉	竺法護(1)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	266~318	天平 10년(738)
7	東晉	帛尸利蜜多羅(1)	佛說灌頂經	317~325	天平 5년(733)
8		佛陀跋陀羅(1)	出生無量門持經	398~421	天平 8년(747)
9		難提(1)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	419	天平 9년(737)
10		曇無蘭(3)	陀隣尼鉢經	381~395	天平 9년(737)
11			玄師跋陀所說神呪經	395	天平 9년(737)
12			摩尼羅-經	395	天平 9년(737)
13		失譯(6)	大金色孔雀王呪經	350~360	天平 9년(737)
14			六字呪王經	317~420	天平 11년(739)
15			七佛所說神呪經	317~420	天平 9년(737)
16			善法方便陀羅尼經	317~420	天平 9년(737)
17			金剛秘密善門陀羅尼經	317~420	天平 9년(737)

59) 石田茂作, 앞의 「一切經疏目錄」. 櫛田良洪, 앞의 책. 勝又俊教, 「奈良時代の密敎」 『密敎歷史』 講座密敎 2, 1977, 春秋社, 참조.

18			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401~412	天平 20년(748)
19	後秦	鳩摩羅什(1)	孔雀王呪經	402~412	天平 10년(738)
20	劉宋	良耶舍(1)	觀藥王藥上二菩薩經	424~442	天平 9년(737)
21		求那跋陀羅(1)	阿難陀目佉尼訶難陀經	435~443	天平 8년(736)
22		功德直(1)	無量門破魔陀羅尼經	462	天平 8년(736)
23	梁	僧伽婆羅(2)	孔雀王呪經	505~520	天平 9년(737)
24			舍利弗陀羅尼經	506~520	天平 8년(736)
25		失譯(11)	牟梨曼荼羅呪經	502~557	天平 9년(737)
26			六字大陀羅尼呪經		天平勝寶 5년(753)
27			虛空藏菩薩七佛		天平 10년(738)
28			陀羅尼經雜集	502~557	天平 14년(742)
29			阿訶婆拘鬼神大將上佛陀羅尼經	502~557	天平勝寶 3년(751)
30			摩利支天經	502~557	天平 9년(737)
31			獅子奮訊菩薩所問經	420	天平 9년(737)
32			華積陀羅尼神呪經	420	天平 9년(737)
33			大普賢陀羅尼經	502~557	天平 9년(737)
34			大七寶陀羅尼經	557	天平 9년(737)
35			六字神呪王經	502~557	天平 9년(737)
36	西秦	聖賢(1)	無崖際持法門經	388~409	天平 9년(737)
37		失譯(1)	佛說大金色孔雀王呪經	350~431	天平寶字 7년(763)
38	北梁	法衆(1)	大方等陀羅尼經	402~412	天平勝寶 7년(763)
39	北魏	曇曜(1)	大吉義呪經	462	天平 9년(737)
40		寶提琉支(1)	護諸童子經	508~535	天平 12년(740)
41		佛陀風多(2)	金剛上味陀羅尼經	525	天平 9년(737)
42			阿難陀目佉尼訶難陀羅尼經	539	天平 14년(742)
43	北周	闍那耶舍(2)	大方等大雲請雨經	570	天平 18년(746)
44			種種雜呪經	561~577	天平 9년(737)
45		耶舍掘多(2)	十一面觀世音神呪經	561~579	天平 10년(738)

46			種種雜呪經	561~579	天平 9년(737)
47	北齊	万天懿	尊勝菩薩陀羅尼經	562~564	天平 9년(737)
48	隋	闍那彌多(8)	一向出世菩薩經	591	天平 8년(736)
49			如來方便善巧呪經	587	天平 9년(737)
50			大法炬陀羅尼經	594	天平 5년(733)
51			大威德陀羅尼經	596	天平 5년(733)
52			十二佛神呪校量功德諸障滅罪經	587	天平 9년(737)
53			金剛毘曇陀羅尼經	587	天平 9년(737)
54			不空縑索呪經	587	天平 9년(737)
55			最勝燈王如來經	600	天平 18년(746)
56		那連提耶舍(1)	大雲輪請雨經	585	天平 20년(748)
57	唐	玄奘(9)	拔濟苦難陀羅尼經	654	天平 9년(737)
58			諸佛心陀羅尼經	650	天平 9년(737)
59			呪五首經	664	天平 9년(737)
60			十一面神呪心經	656	天平 5년(733)
61			不空縑索神呪心經	659	天平 8년(736)
62			持世陀羅尼經	654	天平 8년(736)
63			六門陀羅尼經	645	天平 9년(737)
64			勝幢臂印陀羅尼經	654	天平 8년(736)
65			八名普密陀羅尼經	654	天平 5년(733)
66		智通(4)	千轉陀羅尼經觀世音菩薩呪經	653	天平 10년(738)
67			清淨觀世音普賢陀羅尼經	653	天平 10년(738)
68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經神呪經	653	天平 9년(737)
69			觀自在菩薩隨呪心經	653	天平 10년(738)
70		伽梵達磨(1)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經	658~660	天平 11년(739)
71		阿地瞿多(1)	陀羅尼集經	654	天平 10년(738)
72		地婆訶羅(3)	佛頂尊勝陀羅尼經	685	天平神護 3년(767)
73			最勝佛頂陀羅尼淨除業障呪經	685	天平神護 3년(767)

74			七俱祇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685	天平 5년(733)
75		杜行顛(1)	佛頂尊勝陀羅尼經	678	天平神護 원년(765)
76		佛陀波利(1)	佛頂尊勝陀羅尼經	678	天平 20년(748)
77		提雲般若(2)	諸佛集會陀羅尼經	692	天平 9년(737)
78			智炬陀羅尼經	692	天平 9년(737)
79		實叉難陀(3)	觀世音秘密藏呪經	695~704	天平 9년(737)
80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695~704	天平 10년(738)
81			百千印陀羅尼經	695~704	天平 10년(738)
82		李無諳(1)	不空絹索陀羅尼經	700	天平 9년(737)
83		彌陀山(1)	無垢淨光大陀羅尼	710	天平勝寶 3년(751)
84		寶思惟(5)	大陀羅尼末法中一字心呪經	705	天平 9년(737)
85			觀世音菩薩如意摩尼陀羅尼經	706	天平 19년(747)
86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	693	天平 9년(737)
87			隨求卽得陀羅尼經神呪經	693	天平 5년(733)
88			文殊室利根本一字陀羅尼經	702	天平勝寶 3년(751)
89		義淨(11)	大佛頂尊勝陀羅尼經	710	天平 9년(737)
90			大孔雀王呪經	705	天平寶字 7년(763)
91			觀世音菩薩如意心陀羅尼經	710	天平 19년(747)
92			療痔疾經	710	天平勝寶 3년(751)
93			香王菩薩陀羅尼呪	705	天平 9년(737)
94			曼殊室利呪藏經	703	天平 8년(736)
95			稱讚如來功德神呪經	711	天平 11년(739)
96			善夜經	701	天平 9년(737)
97			一切功德莊嚴王經	705	天平 8년(736)
98			莊嚴王陀羅尼經	701	天平 9년(737)
99			拔除罪障呪王經	710	天平 9년(737)
100		慧智(1)	讚觀世音菩薩頌	693	天平勝寶 3년(751)
101		般刺蜜帝(1)	大佛頂如來密因修証首楞嚴經	705	天平 19년(747)

102		菩提流志(10)	一字佛頂輪王經	709	天平 20년(748)
103			五佛頂三昧陀羅尼經	693	天平 9년(737)
104			廣大寶樓閣陀羅尼經	706	天平 9년(737)
105			六字神呪經	693	天平 9년(737)
106			千手千眼陀羅尼身經	709	天平 7년(735)
107			如意輪陀羅尼經	709	天平 9년(737)
108			不空羼索神變眞言經	709	天平勝寶 5년(753)
109			大乘金剛警珠菩薩修行分	693	天平勝寶 5년(753)
110			護命法門神呪經	693	天平 9년(737)
111			文殊師利寶藏陀羅尼經	710	天平勝寶 3년(751)
112		智嚴(1)	出世無邊門陀羅尼經	720	天平勝寶 3년(751)
113		善無畏(4)	大日經	725	天平 9년(737)
114			蘇悉地經	726	天平 9년(737)
115			蘇婆呼童子經	726	天平 9년(737)
116			虛空藏求聞持法	717	天平 9년(737)
117		金剛智(4)	金剛頂瑜伽略出念誦經	723	天平 9년(737)
118			七俱祇佛母准提大明陀羅尼經	723	天平 9년(737)
119			觀自在如意輪菩薩瑜伽法要	730	天平 9년(737)
120			金剛頂五字心陀羅尼品	730	天平 20년(748)
121		不空(1)	金剛壽經	746	天平 19년(747)
122		역자 및 연대 不明한 것(6)	地藏菩薩陀羅尼經		天平勝寶 5년(753)
123			文殊師利菩薩六字呪功能法經		天平 9년(737)
124			呪目經		天平寶字 4년(760)
125			大乘呪經		寶龜 5년(774)
126			佛說三佛陀呪		寶龜 5년(774)
127			呪本經		寶龜 5년(774)

<도표 15> 寫經年代別로 본 밀교경전(부수)

사경연대	사경된밀교경전 (부수)	사경연대	사경된밀교경전 (부수)
天平 5년(733)	8	天平 20년(748)	5
동 7년(735)	1	勝寶 3년(751)	7
동 8년(736)	11	동 5년(753)	5
동 9년(737)	57	동 7년(755)	1
동 10년(738)	10	寶字 4년(760)	1
동 11년(739)	3	동 7년(763)	2
동 12년(740)	1	神護 1년(765)	1
동 14년(742)	2	동 3년(767)	2
동 18년(746)	2	寶貴 5년(774)	3
동 19년(747)	5		총 127부

<도표 16> 정창원문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주석서

번호	경전명	부수	國別人數(部數)	번호	경전명	부수	國別人數(部數)
1	金光明經	8	신라2, 당3, 不明3	6	佛頂經	3	중국3
2	最勝王經	12	신라4(9부), 당2(3부),	7	十一面經	4	신라2, 당2
3	大般若經	7	신라4, 당2, 不明1	8	灌頂經	2	신라2
4	理趣經	2	신라1, 당1	9	虛空藏菩薩 陀羅尼經	1	不明
5	仁王經	4	신라1, 당3	10	陀羅尼集經	1	不明

이상 우리는 도표 14, 15, 16을 통해 『정창원문서』에 보이는 밀교경전과 그 주석서 그리고 이들 밀교경전의 사경연도의 분포를 알기 위해 이들을 사경연도 순으로 나열해 보았으나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① 奈良朝까지 일본에 전래된 밀교경전은 大正藏에 수록된 밀교경전 612부 961권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130여 부 280여 권으로서

② 이들 밀교경전은 後漢시대부터 唐 中期때까지 역경된 경전, 다시 말하면 支謙, 曇無讖, 僧伽婆羅, 闍那耶舍, 闍那崛多, 그리고 玄奘, 智通, 阿地瞿多, 地婆訶羅, 寶思惟, 義淨, 菩提疏支, 善無畏, 金剛智 등 40여 인에 의해 역경된 경전이다.

③ 733년을 시작으로 初寫經 되기 시작된 이들 밀교경전은 4년 후인 天正 9년(737)에 이르르면 나라조 전체사경(127부)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77부가 이미 사경되었으며,

④ 그러나 이들 밀교경전은 거의가 잡부밀교 경전으로서 正順密教 경전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곧 善無畏三藏의 역경은 4/26부, 金剛智三藏은 4/25부, 不空三藏은 1/172부가 그것으로서,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직 中國 正順密教가 일본에 전래될 충분한 機緣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⑤ 그러나 大日經(12년) <이하 ()의 연수는 역경에서 初寫연까지의 年差를 의미함> 金剛頂瑜伽若出念誦經(14년), 蘇悉地經(11년) 같은 兩部 내지 三部 秘經의 일본 전래는 당에서 역경된 후 곧 바로 이루어졌으며(12~3년 후에 사경됨)

⑥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밀교경전의 주석서가 10부 44권이나 전래되고 있었으며 그 중 반수에 가까운 7부 16권은 신라 승들의 주석서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4. 審祥和尙 所藏錄에 보이는 密教經軌

736년경 신라로부터 來朝해서 60권 화엄경을 강의하면서 東大寺에 화엄종 개종의 꽃을 피우게 했으며, 또한 자기의 所藏 佛書를 東大寺 寫經所에 빌려주는 등 일본불교계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審祥和尙은 新羅僧이었다. 소위 『大安寺審祥寫經錄』이라 불리는 審祥和尙 所藏의 經論은 무려 170부 650권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 중 우리들의 관심사인 밀교경전은 金光明經係(3부 25부), 大般若經係(3부 3권), 理趣經係(1부 1권), 仁王經係(1부 2권), 그리고 眞言 관계(1부 6권) 등 합계 9부 37권이 있으며, 또 그들 중 신라승의 저술은 4부 11권이나 된다. 이상 나라조에 보이는 밀교경전을 『일본서기』 『속일본기』, 『정창원문서』, 『심상화상소장록』 등의 일본 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나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

<도표 17> 審祥和尙 所藏錄에 보이는 密教經軌

번호	密教經軌	권수	역, 저자명	收載年月
1	金光明最勝王經	10	義淨	景雲 2년(768)
2	동 疏	7	眞諦	상동

3	金敲經疏	8	元曉	상동
4	大般若經綱要	1	義寂	상동
5	동 科文	1	不明	?
6	동 宗要	1	元曉	景雲 2년(768)
7	理趣經疏	1	義寂	상동
8	仁王經略述	2	慧淨	상동
9	眞言要集	6	不明	寶字 8년(764)

① 持統朝(696년) 이전에 일본에 장래된 밀교경전은 玄奘 이전의 『衆經目錄』(602년찬) 所收의 구역 경전들이며, 그리고 이 무렵에는 국가의 鎮護를 설하는 『仁王經』 『金光明經』 과 攘災招福을 설하는 『大雲經』, 『安宅經』, 『藥師經』 등의 경전이 중시되었으며

② 일본에 현장 이후의 신역경전이 장래되는 시기는 文武王(707년) 이후부터 天平期 초년(72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또 이러한 新譯經典은 唐이 아니라 신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사실, 곧 이 무렵의 일본의 對外文化 受容의 窓口는 唐이 아니라 新羅였으며, 그리고 신역경전에 대한 연구도 唐僧이 아니라 신라승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들 신역경전과 주석서들은 양국 사신과 <遣新羅 日本學問僧>들에 의해 일본에 전래되었으며,

③ 나라조 경전 전래사 연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정창원문서』에는 무려 130여 부 280여 권이나 되는 많은 밀교경전들이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잡부 밀교경전이라는 것,

④ 이들 가운데에는 善無畏, 金剛智, 不空三藏의 것도 미소하게나마 들어있어 아직 정순밀교의 機緣은 익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兩部 내지는 三部 秘經이라 일컬어지는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 등이 들어 있었으며, 또한 이들 밀교경전들은 역경된 후 곧 바로 전래되었으며, 그 가운데 반수 가까운 주석서들은 신라승들에 의해 주석된 것이라는 것

⑤ 이들 밀교경전의 과반수는 737년(天平9년) 이전에 일본에 전래되었으며

⑥ 나라조 경전 전래사에 있어 신라승 審祥和尙의 위치는 절대로 무시 못할 만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

IV. 新羅史書에 보이는 밀교경전

1.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경전전래 記事

『史記』 및 『遺事』에는 다음 표⁶⁰⁾와 같이 8개소(①65년⁶¹⁾ ②576년⁶²⁾ ③643년⁶³⁾ ④704년⁶⁴⁾ ⑤827년 ⑥851년⁶⁵⁾ ⑦928년 ⑧신라말)의 경전전래 기사가 보인다. 이제 이들 기사

- 60) 『遺事』에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전 전래 기사가 보인다. 「釋勝詮未詳其所自也 常附舶指中國詣賢首國師講下 領受玄言研微積慮 (略)思欲赴感有緣 當還國里 始賢首與義湘同學但稟嚴和尙慈訓首就於師說演迷義科因詮法師還鄉寄示湘仍寓書云云 別幅云 探玄記二十券兩券未成 教分記三券 玄義章等雜義一券 華嚴梵語一券 起信疏兩券 十二門疏一券 法界無差別論疏一券 并因勝詮法師抄寫還鄉, 「有僧梵修遠適彼國 求得新譯後分華嚴經(澄)觀師義疏言還流演時當貞元己卯(799)斯亦求法法洪揚之流乎」 義解5, 「勝詮髑髏」條 (大正藏49, 1009 上.)
- 61) 3년 앞선 563년에 北周에서는 一切經이 만들어 졌다. 1700여 권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런지 ?
- 62) 覺訓이 1215년 찬술한 『海東高僧傳』의 「釋安舍」條에는 安舍(安弘)이 진평왕 23년인 601년 入陣해서 十承秘法과 玄義眞文을 배운 후, 동 27년인 605년 귀국했으며, 이때에 毘摩羅, 眞諦, 農伽陀 등의 외국승과 함께 귀국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떠한 경전들을 將來해 왔을지 사뭇 궁금하기 짝이 없다. 安舍이 신라의 密敎宗派 神印宗과 관계있는 인물이며, 또한 외국승과 함께 귀국했으므로 雜部 밀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경전들이 장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拙稿,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1) -밀교종과 신인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제 2집, 1993년, 중앙승가대학교).
- 63) 602년 찬술된 『衆經目錄』에는 2,113부 5072권의 경론이 수록되어 있다. 慈藏이 將來해 왔다는 400 余函이 어느 정도의 경전인지 알 수 없으나, 자장이 귀족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唐에서도 상당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遺事』에 보이는 다음의 기사는 입당과 귀국 時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慈藏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기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慈藏이 장래해 왔다는 400 余函이란 것이 『衆經目錄』 소수의 경전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本國善德王上表乞還詔許引入宮 賜絹一領雜絲五百端 東宮亦賜二百端 又多禮貺 藏以本朝經像未充乞資藏經一部 泊諸幡幢花蓋 堪爲福利者皆載之 既至泊學國欣迎, (義解 5, 「慈藏定律」條, 大正藏49, 1005 中.)
- 64) 이 경은 703년 義淨스님에 의해 譯出된 『金光明最勝王經』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이 중국에서 역출된 이듬해에 신라에 전래되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당시 新羅와 唐의 밀

를 年代 順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자.

<도표 18>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경전전래 記事

번호	연대	내 용	典 據
1	眞興王 26년 (565년)	「僧明觀載宋佛經論一千七百余券」	『史記』 『遺事』 (塔像제4, 「前後所將舍利」條)
2	眞興王 37년 (576년)	「安弘法師入隋求法與胡僧毘摩羅等二僧廻上楞伽勝鬘經及佛舍利」	『史記』
3	善德女王 12년 (643)	「慈藏法師載三藏四百余函來安于通度寺」	『遺事』 塔像제4, 「前後所將舍利」條
4	聖德王 3년 (704)	「入唐金思獲廻獻最勝王經」	『史記』
5	興德王 2년 (827)	「高句麗僧丘德上佛經若干函來」	『遺事』 塔像제4, 「前後所將舍利」條
6	文聖王 13년 (851)	「入朝使元弘載佛經若干軸來」	『史記』
7	敬順王 2년 (928)	「默和尙入唐亦載大藏經來」	『遺事』 塔像제4, 「前後所將舍利」條
8	?	「新羅末普嚕禪師再至吳越載大藏經來卽海龍王寺開山祖也」	『遺事』 塔像제4, 「前後所將舍利」條

2. 『史記』 및 『遺事』에 보이는 밀교경전

『사기』 및 『유사』, 특히 『遺事』에는 32부의 경전명이 보이고 있으며,⁶⁶⁾ 이들 중에는 밀교경전의 이름도 15개 정도 보인다. 이제 이들 밀교경전들을 도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자.

접함은 말할 것도 없이 나아가서는 두 나라간의 文化의 전파가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해 준다.

- 65) 『遺事』 탐상 4 「前後所將舍利」條에도 元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唐大中 5년(851) 辛未入朝使元弘所將佛牙(今未詳所在)」
- 66) 『遺事』에는 起信論, 般若經, 梵網經, 法界無差別論疏, 法華經(8권), 普賢章經, 佛報恩經, 舍利問經, 四阿含經, 三昧經疏, 攝論, 成實論, 搜玄疏, 十二門疏, 涅槃經, 地藏經, 探玄記, 華嚴經, 華嚴疏 등 많은 經疏의 이름도 보이고 있다.

〈도표 19〉 『史記』 및 『遺事』에 보이는 밀교경전

번호	經典名	譯者	典據
1	供養次第法疏(3권)	不可思議(述)	『遺事』 제5 「關東楓岳鉢淵藏石記」條
2	藥師如來本業經(1권)	達磨笈多(述)	『遺事』 제6 「密本摧邪」條
3	占察善惡業報經(2권)	菩提證(譯)	『遺事』 제5 「關東楓岳鉢淵藏石記」條
4	隋求陀羅尼經(1권)	寶思惟(譯)	『遺事』 제4 「臺山五萬眞身」條
5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2권)	鳩摩羅什(譯)	상동
6	合部金光明經(8권)	寶貴(譯)	『遺事』 제4 「臺山五萬眞身」條, 제5 「賢瑜伽海華嚴」條
7	金光明最勝王經(10권)	義淨(譯)	『史記』 「聖德王 3년」條
8	千手千眼觀世音大悲心陀羅尼經(2권)	智通(譯),菩提琉支(譯)	『遺事』 제4 「臺山五萬眞身」條 / 『遺事』 제4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條
9	千手千眼觀世音大悲心陀羅尼經(1권)	迦梵達摩(譯)	상동
10	千手千眼觀世音治病合藥經(1권)	迦梵達摩(譯)	상동
11	千手千眼觀世音 陀羅尼身經	菩提琉支(譯)	상동
12	十一面神呪心經(1권)	玄奘(譯)	『遺事』 제7 「憬興遇聖」條
13	觀佛三昧海經(10권)	佛陀拔陀羅(譯)	『遺事』 제5 「魚山佛影」條
14	大般若波羅蜜多經(600권)	玄奘(譯)	『遺事』 제4 「臺山五萬眞身」條
15	梅檀香火星光妙女經	毘摩羅眞啼. 農加陀(이상도래승). 安弘(신라승)	『海東高僧傳』 권2, 「釋安舍」傳

이상 『史記』와 『遺事』에 보이는 경전전래 기사와 밀교경전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라사서에 보이는 경전전래 기사는 진흥왕 6년(565)부터 신라 말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행해졌으며, 또 이들 가운데 신라의 불교공인 이후 삼국통일 이전 곧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말까지 약 150여 년 간을 살펴보니 진흥왕대(2회), 선덕왕대(1회) 등 이 시대의 전래 기사가 전체 전래기사의 3/7을 차지하고 있어, 신라가 불교공인(527년) 이후 불교문화 흡

수에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한반도를 통일하여 삼국의 주인공이 된 곧 신라불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7세기부터 9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150년 간에는 성덕왕 3년(704), 흥덕왕 2년(827), 문성왕 13년(851) 등 단 3차례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신라사서에 보이는 경전전래 기사만을 의지하여 신라불교의 경전전래의 실상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유사』의 撰者인 一然 스님(1206~1289)도 이러한 論難이 일어날 것을 예견이나 한 듯 경전전래 기사를 전하는 마지막에 「此外方冊所不載 高僧信士往來所責不可詳記 大敎東漸洋洋乎慶矣哉」이라 하여,⁶⁷⁾ 이들 경전전래 기사 외에도 고승이나 淸信士들에 의해 장래된 경전들이 많다는 것을 추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논한 통일신라기의 신라와 唐의 외교적 밀접함이나 圓測, 義湘, 勝莊 등 신라 유학승들의 활약상, 그리고 元曉, 憬興, 勝莊, 道倫 등의 신라승들에 의한 주석서와 견신라 일본유학승들의 기사들을 보는 한 650~800년 당시의 신라는 불교문화의 본거지인 唐과 거의 동등하리 만큼의 殊勝한 불교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곧 703년 10월 義淨에 의해 번역된 『金光明最勝王經』이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다음해(704) 3월에 신라에 전래된 사실이나, 또 704년 彌陀山에 의해 번역된 『無垢淨大陀羅尼經』이 2년 후인 706년에 신라의 皇福寺 石塔에 安置된 사실 등은⁶⁸⁾ 당시 신라와 당의 교류가 밀접하고 빨랐음은 물론 그만큼 신라 불교문화가 수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史記』나 『遺事』에는 밀교경전이 11부밖에 보이지 않는다. 곧 『약사경』 『점찰경』 『수구타라니경』 『인왕경』 『금광명경』(8권) 『최승왕경』 『천수경』 『십일면신주심경』 『관불삼매경』 『대반야경』 『공양차제법』 등이 그것이나, 이들 밀교경전들(11부)을 일본의 奈良朝에 보이는 130여 부의 밀교경전들(이들 밀교경전들이 당이나 신라에서 장래된 것은 이미 앞에서 논한바 있다)과 비교해 보면 『유사』나 『사기』 등에 보이는 경전전래 기사가 얼마나 황당하리만큼 대충대충 기록되었는가 잘 알게 해 준다. 물론 『史記』(1145년撰)나 『遺事』(1280년撰)가 불교 전문 기록서나 역사서가 아니고 일반 역사서이며⁶⁹⁾ 그 또한 5,600여 年前의 아주 오래된 것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

67) 『遺事』 塔像 제4, 「前後所將舍利」條

68) 「孝昭王登霞神龍二年(706년)丙午五月三十日 今主大王佛舍利四 全金彌陀像六寸一軀 無垢淨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二層」(黃壽永編, 「新羅皇福寺金銅舍利函銘」, 『韓國金石遺文』 p.140), 中吉功編, 『新羅高麗의 佛像』 pp.130~131, 1973, 二玄社

69) 『유사』에 대한 평가는 종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3가지 입장으로 集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佛敎文化書인 동시에 종합적 歷史書라는 입장 (김영태, 「史書로서의 삼국유사」 『아시아 公論』 1949년 4월호), 두번째, 비합리적이

므로 어찌 이들을 닮을 수 있겠는가? 일반 史書의 성격을 갖는 이들이 이나마라도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편이다. 아무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일본의 『정창원문서』와 같은 기록이나 사서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되고 말았으나, 그나마 다행한 일로 신라승의 전기나 그들에 의해 저작된 주석서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고, 또 당시 불교 유산이라 할 불교 미술품(佛像, 塔, 捧納經典) 들도 어느 정도 발굴되어 이들을 통해 경전전래에 대한 고증이 조금은 보완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아무튼 『사기』나 『유사』를 보는 한 당시 신라에는 『인왕경』, 『금광명경』, 『대반야경』 등의 護國經典과 『십일면경』, 『수구타라니경』 등의 攘災招福의 경전들이 증시되어 자주 독경되고 사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신라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과 신라 그리고 奈良朝가 갖는 공통적 특색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불교 미술품에 보이는 밀교경전

신라의 불교 미술품 중에는 약간이긴 해도 밀교 미술품이 남아있어 당시 성행했던 밀교신앙의 일면을 알게 해주고 있다.⁷⁰⁾ 이하 이들 밀교 미술품(비로자나불상, 각종 密敎法具, 밀교경전) 중 어떠한 밀교경전들이 전래되고 신앙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⁷¹⁾

<도표 20> 불교 미술품에 보이는 밀교경전

번호	經名	券數	譯者(譯經年代)	捧納處(추정연대)	日本初寫年代	비고
1	佛頂尊勝陀羅尼經	1	佛陀波利(679)	法光寺 삼층석탑(828)	736	

기에 역사서가 아니라는 입장(李基白, 『韓國史學의 방향』 p.43 註 12번) 그리고 세번째, 『遺事』와 『史記』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高柄翊, 『震壇學報』 63호) 등이다

70) 밀교 미술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拙稿, 「밀교사상의 신라적 전개」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 10호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기원과 神印寺의 四方佛」 『한국사 연구』 18호 中吉功 編, 앞의 책. 文明大, 「신라 神印宗의 연구」 『震壇學報』 41호 田邊三朗助, 「韓國의 鐵佛」 『ムユ-ゼ-アム』 33호 石田尚豊, 「密敎繪畫, 彫刻, 圖像」 『密敎文化』 講座密敎 4.

71) 『韓國文化財大觀』 보물편. 黃壽永편, 앞의 책 p.147, 159, 166, 172.

2	無垢淨經	1	彌陀山(704)	皇福寺 삼층석탑(706) 佛國寺 석가탑(751) 昌林寺 삼층석탑(855) 桐華寺 비로암(863) 鷲棲寺 석탑(867)	737	
3	金光明最勝王經	10	義淨(703)	百城山寺 길상탑(895)		
4	眞言集錄			백성산사 길상탑(895)		
5	隋求陀羅尼經		寶思惟(693)	백성산사 길상탑(895)	734	

위 도표는 현재까지 탑 속에서 발굴 내지 발견된 밀교경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奉納 추정연대와 奈良朝에 초사된 연대를 병기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 시작된 것인데 그 결과는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고 말았다. 곧 봉납 연대가 당연히 일본의 초사 연대보다 상당히 빠르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조사였으나, 생각 밖으로 751년 銘記의 현존 세계 最古의 목판 인쇄경으로 확인된 『무구정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전들은 일본의 초사 연대보다 오히려 늦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비교된 경전들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과 또 탑내 봉안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위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나름대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결과가 어떠한 9세기 말 신라의 봉안경전으로 성행했던 밀교경전은 『불정존승타라니경』과 『금광명최승왕경』과 『수구타라니경』이며, 그리고 이러한 조탑 내지는 봉탑 신앙의 근거로 더 없이 중시되던 경전은 四種 다라니와 77基, 99基 등 소탑의 봉납을 설하는 『무구정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704년 미타산에 의해 번역된 『무구정경』의 사본이 2년 후인 706년에 신라의 皇福寺 삼층석탑에 봉납된 사실과 (봉납된 경위를 기록한 금동사리함까지 발견됨) 또한 751년 조성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경』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라고 판명된 점 등은 신라와 당의 밀접함은 말 할 것도 없이 신라 불교문화의 수승함을 충분히 알려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이 『무구정경』이 일본에서는 737년에야 비로서 초사되었으며 또 770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봉탑신앙으로서 자리잡게된 사실과⁷²⁾ 비교할 때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게 된다. 신라에서 성행한 『무구정경』의 봉탑신앙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72) 李弘植, 「慶州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朝鮮學報』 49호 大屋徳城, 「無垢淨陀羅尼經開版と其の 信仰」 『寧樂刊經史』 p.9.

4. 諸 章疏錄에 보이는 신라승 저작의 密敎論書

<도표 21> 諸 章疏錄(義天錄 平祚錄 永超錄 藏俊錄)에 보이는 밀교논소

번호	經典名	권수	저자	初寫 年代	비고
1	수원왕생기 (대관정신주경) 제11권	1	玄一 (?~?)	천평 20년(748)	奈良錄
2	관정경소	2	憬興 ?(640~710)	경은 2년(768)	상동
3	십이문타라니경소	1	憬興		永超錄
4	십일면경소	1	智仁(?~?)	승보 3년(751)	奈良錄
5	십일면경소	1	道倫 ?(660~730)	천평 15년(743)	奈良錄
6	약사경소	1	憬興		義天錄
7	약사본원기고적기	2(存)	太賢 ?(710~780)		義天錄
8	약사본원경소	1	義榮(백제)		永超錄
9	약사경소	1	道倫	?	義天錄
10	인왕반야경소	6(存)	圓測(613~686)	승보 3년(751)	奈良錄
11	인왕반야경고적기	1	太賢	?	義天錄
12	인왕반야경소	2	玄範(?~?)	?	平祚錄
13	금광명경고적기	1	太賢	?	義天錄
14	금광명경소	8	元曉(617~686)	천평 15년(743)	奈良錄
15	금고경소	8	元曉	승보 4년(752)	奈良錄
16	금광명경약의	1	憬興	?	義天錄
17	금광명경술찬	7	憬興	?	永超錄
18	금광명경술기	4	太賢	?	義天錄
19	금광명경약기	1	道倫	?	義天錄
20	금광명최승왕경약찬	5(存)	憬興	천평 12년(740)	奈良錄
21	금광명최승왕경소	10(5)	憬興	승보 3년(751)	奈良錄
22	금광명최승왕경과간	1	太賢	천평 17년(745)	奈良錄
23	금광명최승왕경소	8(1)	勝莊(~700~)	천평 19년(747)	奈良錄

24	반야이취분경소	1	道倫	?	藏俊錄
25	이취경유찬	1	義寂 ?(640~710)	보자 7년(763)	奈良錄
26	반야이취분경소	1	道證 ?(640~710)	?	義天錄
27	반야이취분경소	2	太賢	?	義天錄
28	대반야경강요	1	義寂	천평 20년(748)	奈良錄
29	대반야경강목	1	道證	천평 12년(740)	奈良錄
30	대혜도경중요	1(存)	元曉	천평 20년(748)	奈良錄
31	대반야경유찬	1	義寂	?	藏俊錄
32	대반야경약기	2	道倫	승보 원년(749)	奈良錄
33	십륜경초	3(2)	神昉		平祚錄
34	십륜경소	8	神昉		永超錄
35	십륜경음의	1	神昉		永超錄
36	대승대집지장십륜경서	1(存)	神昉		永超錄
37	석마가연론		月忠		東域傳燈目錄

위 도표를 통해서 『奈良朝寫經目錄』 『義天錄』 『平祚錄』 『永超錄』 『藏俊錄』 등의 章疏錄에 보이는 신라승 저작의 密教論疏들을 살펴보았으나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① 신라승에 의해 저술된 밀교경전은 10종 36부 90권에 이른다는 것
 - ② 이들 주석서들은 국가의 鎮護를 설하는 호국경전이 대부분으로 그중 『금광명경』계의 경전이 구역(6부 22권), 신역(4부 24권) 합쳐 모두 10부 46권이며, 『대반야경』계의 경전은 『이취경』을 포함하여 모두 9부 11권이나 된다는 것.
 - ③ 주석자의 대부분은 통일신라 전후기 곧 신라 불교의 황금기에 활약한 승려들이었다는 것
 - ④ 이들 주석서들의 대부분은 일본에 장래되어 사경되었는데
 - ⑤ 대부분이 740년대(천평 12년, 효성왕 4년)에 초사되었으며
 - ⑥ 이들 가운데 원효(617~686), 원측(613~696), 도륜?(660~730) 등은 초사 연대인 740년보다 빠른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여기에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생긴다. 곧 초사 연대인 740년

보다 50여 년이나 앞서 활약한 신라승들의 주석서가 왜 50년 뒤인 이때에 와서야 초사되었는가 하는 문제 이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들 신라승들의 주석서는 그들 재세시에 이미 일본에 전래되었지만 무언가의 이유, 예를 들면 아직 일체경이 모두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의 완성을 본 740년에 이르러서야 초사된 것이 아닌지, 둘째 또는 이들의 주석서가 이들의 사후 곧 740년 경에야 비로소 일본에 전래된 것이 아닌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들 중 첫 번째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관상(665년 귀국), 관지(689년 귀국), 신예(693년 入新羅), 의법(707년 귀국), 행선(718년 귀국) 등 많은 <견신라 일본유학승>들은 신라 불교문화를 꽃 피운 원효를 비롯한 신라 주석가들의 불교를 배우기 위해 신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곧 그들 견신라 일본유학승들은 원효를 비롯한 신라 주석가들을 만나 그들의 저작과 사상은 물론 당시 신라에 장래되어 있던 각종의 현밀경전들을 선물 받거나 사경하여 일본에 가지고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당시의 일본의 대외문화 초입의 창구는 당이 아니라 신라였으며, 또한 당시 신라 불교문화라는 것은 불교 문화의 본거지인 당과 대등할만큼 수승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수승한 불교 문화를 지탱해 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慈藏, 義湘, 圓測, 明朗, 慧超 등 입당 신라유학승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正倉院文書』의 사경목록 중 197부나 되는 많은 經錄들이 신라승들의 주석서이며, 또 총 10부의 밀교경록 중 70%에 해당하는 7부가 신라승의 저작이라는 사실은 당시 奈良朝에서 신라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제 2기 奈良佛敎의 특징을 신라 불교의 移植期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主唱하는 바이다. 당시의 신라에는 奈良朝에 보이는 밀교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에서 역경된 대부분의 현밀경전들이 將來되었으며, 나아가 奈良朝에 보이는 현밀경전들은 대부분이 신라를 통해서 將來되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主唱을 더욱 뒷바침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다음 항에서 고찰할 주제인 것이다.

V. 중국사서에 보이는 신라밀교승

중국사서에는 신라밀교승에 관한 기사가 제법 많이 언급되고 있어 통일을 완수한 신라 불교계에도 중국의 新佛敎 密敎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공적을 세운 歸唐 新羅密敎僧 明朗은 679년 四天王寺 창건과 함께 神印宗을 開宗하였으며, 또 新聞王대의 金欽突의 난을 平定한 공적으로 惠通은 692년에 總持宗을 開宗할 수가 있었다. 한편 玄奘三藏의 歿(692년)이후 점차 譯經 入藏되기 시작한 秘密經典은 善無畏(716년), 金剛智(719년) 등 純密家의 長安 入京을 계기로 중국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참신한 眞言密敎經典들이 계속해서 將來, 譯出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不空三藏의 시대(746년의 재입당 이후)가 되면 安祿山の 亂과 史思明의 亂 등 내란과 외적을 퇴치한 不空의 밀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그 교세는 점차 중국 전역에까지 미치게 되어 드디어 중국 불교를 秘密 眞言 佛敎時代로 치닫게 하고 만다. 따라서 中國史書에 보이는 신라밀교승들의 기사는 당시 당의 불교계에 새롭게 등장한 秘密佛敎에 대해 신라 정치계는 물론 불교계 나아가서는 이제 막 開宗한 神印, 總持 두 밀교종파의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신라밀교승에 대한 이들 중국사서의 기사들은 神異軍國佛敎로서의 密敎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신라 정부와 신라 불교계 그리고 양 밀교종파가 신불교 곧 밀교의 구범을 목표로 自宗의 승려들을 唐에 보낸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不空(705~774)을 정점으로 당의 불교계를 지배하고 있던 밀교, 그 新佛敎를 목표로 입당 유학했던 신라밀교승들을 고찰하여 그것에 의해 密敎經典 傳來史에 있어서 그들 밀교승들이 차지했던 위상을 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⁷³⁾(이하 『付法記』로 함)와 『大毘盧遮那大敎王相承師資血脈圖』⁷⁴⁾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밀교승들의 血脈을 보면, 당시 唐에는 善無畏三藏의 胎藏界法과 金剛智三藏의 金剛界法을 배우러 바다를 건너 온 신라승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玄超, 不可思議, 義林 등은 일본 최초의 密敎僧 空海의 入唐(804년)보다도 7·80년이나 먼저 입당하여 친척僧 善無畏의 傳法弟子가 된 것으로 되어있다. 곧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와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에는 신라의 밀교승 玄超阿闍梨(680~750?)가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 등의 三部 비경은 물론 諸尊瑜伽法까지 善無畏三藏으로부터 付法받고 그 秘法을 唐僧 惠果(746~805)에게 付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신라승 玄超의 肖像畫 原本이 京都大學의 久原文庫藏本에 수록되어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그 寫本이 大正新修大藏經에 收藏되어 있는 실정이다.⁷⁵⁾ 밀교사에서의 현초아사리가 갖는 위상이 얼마나 컸으면 異國僧인 현초의 초

73) 大正藏51, pp.786~787.

74) 日本大藏經80, p.42.

75) 玄超 아사리의 초상화가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려졌는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 大正藏 圖像部 卷 2, p.47에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다.

상까지 그러 보존하려 했을까? 그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현초아사리가 日本 眞言宗의 開祖인 弘法大師 空海(774~835)의 法祖(노스님)에 해당되므로 귀국시 空海가 얻어 온 것이거나 아니면 귀국 후 空海門徒의 누군가에 의해 그려져 보전되어 왔을 것이다.

또 신라 영묘사의 僧으로 중국에 건너가 胎藏界法의 大家인 善無畏三藏의 門下에 들어가 크게 활약한 不可思議(700~770?)가 있다. 곧 그는 선무외삼장의 지시를 받아 『大日經』 권7에 해당되는 『大日經供養次第法疏』를 찬술하였다. 선무외삼장은 태장계밀법의 기본이 되는 대일경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제자인 一行에게는 권6까지의 주석을, 그리고 신라인 제자인 不可思議에게는 권7 「供養次第法」의 주석을 쓰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일경』의 주석서로서 그리고 오늘날 『대일경』 연구를 하는데 제1의 필독서로 사랑받는 『大日經疏』(20권)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현재 『佛敎解說大辭典』에는 불가사의의 『供養次第法』에 대한 주석서로서 『大日經不思議疏記』 『大日經不思議疏口訣』 『大日經不思議疏三重秘釋傳授口訣』 등 10여 부의 주석서가 收載되고 있다. 이들 주석서의 대부분이 鎌倉時代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당시 『대일경』 연구에 불가사의의 『供養次第法疏』가 얼마나 중요시 되었던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⁷⁶⁾ 不可思議의 思想에 대해서는 拙稿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新羅密敎僧들의 思想』에 상세히 고찰해 놓았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또 중국에서 태장계 밀법의 대가로서 이름을 크게 떨친 신라 밀교승에 義林이 있다. 곧 海雲의 『付法記』에는 비록 그 이름이 빠져 있으나, 『順曉阿闍梨付法文』⁷⁷⁾과 『內證佛法相承血脈譜』에는⁷⁸⁾ 선무외삼장의 제자로서 大悲胎藏曼荼羅妙法의 제2 付囑 傳授者로서 신라승 義林(703~805?)을 거명하고 있다. 곧 惠果와 동 시대에 활약한 唐僧 順曉⁷⁹⁾의 친필로서 그의 제자인 일본의 最澄이 付囑해 왔다고 전해지는 『順曉阿闍梨付法文』에는 순효가 선무외삼장의 부촉제자인 신라승 의림으로 부터 태장계법을 付囑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最澄이 직접 쓴 『內證佛法相承血脈譜』의 「金剛界相承」條에는 善無畏-義林-順曉-最澄으로 기록되어 義林이 선무외삼장으로부터 금강계 밀법도 부촉받은 것으로 기록하

76) 『佛書解說大辭典』 卷 7, pp.407~408.

77) 『顯戒論緣起』 상권, 『傳敎大師全集』 卷 2.

78) 『傳敎大師全集』 卷 1.

79) 弘法大師 空海의 저서인 『御遺告』에는 「靑龍寺大師與并御相弟子 內供養十禪師順孝阿闍梨 云云」이라 하여, 順孝가 惠果 和尚과 함께 不空三藏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다. (『弘法大師全集』 卷 2, p.786, 799, 825), 이 『御遺告』는 그 眞僞 문제로 학계의 관심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弘法大師 친필이 아닌 누군가 後人에 의해 위장 付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 있다. 서로 相異한 기록으로 일본 밀교학계 특히 진언종과 천태종에서는 현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⁸⁰⁾ 선무외삼장과 금강지삼장과의 상호 관계(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나 또 선무외삼장의 저서에 금강계 계통의 저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무외삼장은 태장계 밀법만 중국에 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선무외삼장의 제자로만 되어있고 그의 다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新羅僧 義林과 唐僧 順曉 그리고 日本僧 最澄은 당연히 태장계 밀법만 부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의림의 초상화가 京都大學의 久原文庫藏本과 大正新修大藏經에 玄超의 초상화와 더불어 收藏되어 보존되어 있다.⁸¹⁾ 이것 역시 의림이 일본 천태종의 開祖 最澄의 法祖에 해당되므로 이루어진 일일 것으로 最澄이나 또는 最澄의 문도에 의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보존되었을 것이다.

또 이들 외에도 入唐하여 이름을 크게 떨친 신라 밀교승들이 있으니 慧超와 慧日 등이 그들이다. 곧 『往五天竺國傳』이란 불후의 명저를 남겨 이름을 세계에 떨친바 있는 慧超는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鉢大敎王經』(이하 『千鉢經』이라 표기함)이란 밀교경전에 序文을 남겨 놓음으로서, 금강계 밀법을 중국에 전한 金剛智三藏과 중국밀교의 완성자인 不空三藏의 제자답게 그 이름을 밀교사에 영원히 남겨 놓았다.⁸²⁾ 혜초의 생애 및 그의 思想에 대해서는 拙稿에 상세히 고찰해 놓았다.⁸³⁾

또 중국 사서인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에는 중국 밀교의 대성자인 不空三藏의

80) 清水谷恭順氏は『順曉阿闍梨考』에서 순효가 금, 태양부의 밀법을 부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大正大學學報』 30, 31호. 이에 대해 木内曉央氏は 不空-順曉의 法脈은 불가능한 것, 곧 선무외-의림-순효라는 법맥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맥이 형성되었기에 순효를 선무외삼장의 제3의 부촉제자라 하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天台密敎の形成』 p.114, 1984, 溪水社.

81) 의림 화상의 초상화는 현초 화상의 초상화와 함께 현재 京都大學의 久原文庫藏本에 보존되어 있으며, 중요성이 인정되어 그 寫本이 大正藏 圖像部에 收藏되어 있다.

82) 『三藏和尚遺書』(『不空三藏表制集』 卷 3)에는 「入壇授法弟子頗多 五部琢磨成立八箇 淪亡相次 唯有六人其誰得之 卽有金闍含光, 新羅慧超, 靑龍慧果, 崇福慧朗, 保壽元皎, 覺超」(大正藏52, 844 中.)이라 하여, 혜초를 不空의 제자 六哲中의 한 사람으로 거명하고 있다.

83) 拙稿,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신라 밀교 승들의 思想』 『중앙승가대 논문집』 제5집, pp.72~77, 1996년. 또한 혜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 연구논문들이 있다. 藤田豊八,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大日本佛敎全書』 卷73. 高南順次郎, 「慧超傳考」 『大日本佛敎全書』 卷 73. 大谷勝眞, 「慧超往五天竺國傳中の 一二について」 『朝鮮論集』(小田先生頌壽紀念) 1934. 松本文三郎, 「千鉢經序について」 『宗教研究』 3권 2호.

제자로서 금, 태양부 밀법을 부촉받은 惠果和尚 밑에서 日本 眞言宗의 開山祖인 弘法 大師 空海와 함께 金剛界, 胎藏界, 蘇悉地法 등의 三部密法과 諸尊瑜伽法을 부촉받은 것으로 신라승 慧日(755~789)을 거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성답게 그는 신라로 귀국하기에 앞서 李無諠 역출의 『不空羂索陀羅尼經』에 「不空羂索呪印」(1권)을 附加시켜 本經이 가진 결점을 보완시켜 놓았던 것이다. 혜일의 생애 및 사상에 대해서는 拙稿에 상세히 밝혀 놓았다.⁸⁴⁾ 이상 중국 사서에 보이는 신라 밀교승들을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신라밀교승들의 활약이 생각 이상으로 상당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神印, 總持 양 밀교종파의 교세 또한 왕성했음을 짐작케 해준다.⁸⁵⁾ 본 고의 주제인 밀교경전의 전래는 바로 이들 밀교승들의 在唐 시절이나 귀국 시, 본인들에 의해 직접 전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밀교적 의식들(범패, 구병시식, 천도의식, 점안 등등) 또한 전래 밀교 경계서들의 공양차제법이나 밀교승들의 師資相承을 통해 신안화 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VI. 결론

이상 『밀교경전의 신라 傳來考』라는 주제를

1. 통일신라 전후기의 삼국 불교의 관계
2. 奈良朝 일본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3. 신라사서에 보이는 밀교경전
4. 중국사서에 보이는 신라 밀교승

등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가> 당시의 일본(奈良)불교는 ① 백제불교의 移植時期 ② 舊佛敎(백제 및 고구려의 불교)와 新佛敎(당 및 신라불교)가 융합되는 시기 ③ 신라 불교의 移植時期 등 세 시기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시대로서, 이 시

84) 拙稿, 위의 논문, pp.78~79.

85) 신라밀교승들의 활약상과 그 소속종파에 대해서는 拙稿,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1) -밀교종파 神印宗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제2집, (1993년, 중앙승가대학교) 및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2) -밀교종파 總持宗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 (1995년, 중앙승가대학교)에 상세히 밝혀 놓았다.

대의 키워드는 <新羅道><新羅送使><遣新羅使><遣新羅學問僧>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키워드가 말해주듯이 당시 일본의 對外文化 輸入의 窓口는 唐이 아니라 新羅였으며,

<나> 당시의 신라는 신라 불교의 黃金期에 해당하는 시기, 곧 元曉, 義湘, 圓測, 勝莊, 憬興, 道倫 등 명승들이 활약한 시기로서, 이때의 신라 불교문화는 불교문화의 본거지 唐과 거의 同等한 秀勝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가>에서 밝힌 <新羅道, 新羅送使, 遣新羅使, 遣新羅學問僧>들을 통해 신라의 수승한 불교문화를 수입해 갔으며,

<라> 持統朝(696년)까지 일본에 전래된 경전들은 602년찬 『衆經目錄』에 수재된 구역 경전들로서, 현장 이후의 新譯經典이 일본에 전래되는 시기는 文武朝(707년) 이후이며, 이러한 신역경전의 將來는 唐이 아니라 <遣新羅使>와 <遣新羅學問僧>들에 의해 新羅로부터 전해 졌으며,

<마> 奈良朝에 일본에 전래되어 있던 經典의 全貌를 알려주는 『정창원문서』에는 130여 부(80권)?의 밀교 경전과 10부의 밀교 경전 주석서가 수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雜部密敎經典으로서 이들 경전의 과반수는(77부) 737년 이전에 이미 일본에 전래되었으며,

<바> 이들 가운데는 三部秘經이라 일컫는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이 들어 있으며, 그리고 <마>에서 밝힌 10부의 밀교 경전 주석서 가운데는 新羅僧의 註釋書가 7부나 되며,

<사> 奈良朝의 經典 傳來史에 있어 신라승 審祥和尙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는 것, 곧 그가 소장하고 있던 『심상화상목록』(170부 645권) 중에는 밀교경전이 9부 37권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또 이 가운데 新羅僧에 의해 주석된 밀교 주석서는 4부 11권이나 된다는 사실,

<아>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新羅史書에는 경전전래 기사가 7회 보이고 있으나, 그 가운데 신라불교의 황금기라 할 7세기말부터 9세기초까지의 150여 년 간에는 불과 3회 밖에 안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경전이 전래되었는지 또 어떠한 경전들이 전래되었는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들 史書 속에는 『藥師經』 『占察經』 『隨求陀羅尼經』 『仁王經』 『金光明經』 『最勝王經』 『千手經』 『觀佛三昧經』 『大般若經』 『供養次第法』 등 10부의 經名이 보인다는 것,

<자> 신라시대 조성의 탑 속에서는 『佛頂尊勝陀羅尼經』 『無垢淨陀羅尼經』 『金光明最勝王經』 『隨求陀羅尼經』 『眞言集錄』 등의 밀교경전들이 발견되어 밀교경전들을 탑 속에 봉납하는 신앙이 신라시대부터 성행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 밀교경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봉납된 경전은 『無垢淨陀羅尼經』이며, 또 현재 발굴된 것 중 가장 빨리

봉납된 시기는 彌陀山の 역경 년(704년)보다 불과 2년 늦은 706년이었던 것,

<차> 諸 章疏錄들, 곧 『奈良朝寫經目錄』 『義天錄』 『永超錄』 『藏俊錄』 『平祚錄』 속에는 통일신라 전후기에 활약한 신라승에 의해 찬술된 密敎論疏들이 10종류 36부 90권이나 되며,

<카> 이들 密敎論疏들중 가장 많이 주석되어진 밀교경전은 『金光明經』 『大般若經』 『仁王經』 등의 호국경전들이며,

<타> 740년부터 800년경의 신라에는 善無畏三藏으로부터 胎藏界 밀법을 付囑 받은 玄超, 不可思議, 義林 등의 밀교승과, 金剛智, 不空三藏으로부터 金剛界 밀법을 부촉받은 惠超, 그리고 惠果 화상으로부터 金, 胎兩部の 密法을 부촉받은 惠日 등 밀교의 대가들이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 곧 이들 중 현초는 혜과의 師僧이며, 또 의림은 일본 천태종의 개종자 最澄의 法祖로서 그리고 혜일은 일본 진언종의 개종자인 空海와 더불어 금, 태양부 밀법의 부촉자인 혜과의 슬하에서 밀법을 전수받는 등, 이들 신라 밀교 승들의 당에서의 활약상은 대단하였다는 것,

<파> 상기 신라밀교승들의 활약상으로 보아 당시 신라 밀교계 곧 神印, 總持의 양 밀교종파의 교세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하> 이들 신라 밀교승들은 신라에 歸國 時나 또는 在唐 시절 선무외, 금강지, 불공 등 밀교 삼장들에 의해 역출된 밀교경전들을 직간접으로 母國 신라에 장래했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本考 『밀교경전의 신라 전래고』를 마치면서 그 結語로서 한 마디 덧붙인다면,

- ① 『정창원문서』에 보이는 顯密經典들은 唐이 아닌 신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 곧 <신라송사> <견신라일본학문승> <양국사신> 등을 통해서 일본에 전래되었으며,
- ② 당시(신라 중기) 신라 불교계에는 일본의 『정창원문서』에 보이는 현밀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 唐에서 역출된 대부분의 현밀경전들이 장래되어 있었다고 主唱하고 싶다.